登錄라－2448號
1988. 11. 9 第 3 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0년 2월 1일 제143호

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새봄맞아 힘찬 跳躍의 轉機를"

活氣찾은 同窓會 함초롬히 피어난 蘭 꽃망울이 새 봄을 알린다. 4일은 立春 19일은 雨水, 겨우내 움츠렸던 同窓會 활동도 새봄과 함께 活氣를 찾고 있다.

冠岳春秋

二月化

漢詩에 「霜葉이 紅於二月花」란 구절이 있다. 서릿발에 붉어진 丹楓잎이 二月 꽃보다도 더 붉다는뜻이다. 여기서는 음력 二月이니까 양력으로는 3月에 해당된다. 그런데 梅花 등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4월이나 되어야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우리나라 中部地方으로서는 계절이 안맞는다. 이런 사정은 中國에서도 마찬가지여서 揚子江 북쪽 곧 江北에서는 음력 二月에 꽃을 볼 수 없을 것이 的實하다. 그러면 이 詩의 내용은 事實을 잘못 읊었단 말인가, 또는 虛構인가. 이도 저도 아니고 단지 봄이 일찍 오는 江南에서의 情景을 읊은 것일 뿐이다.

어떻든 할 일 다하고 마지막 情熱을 건어모아 落照로 불사르는 丹楓잎이 한창 피어오르는 봄기운을 타고 새빨갛게 피는 봄꽃을 당할 리야 있으랴만, 이 詩의 妙味는 바로 견줄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맞당겨 對比한데 있다. 對比의 極致라고나 할까. 말하자면 子女를 다 길러 제 갈길 가게 해 놓고, 모든 근삽 걱정 뛰어넘어 뽀얗게 다시 피어오르는 初老女人의 고운 얼굴이 열여덟 한창 피는 꽃다운 처녀의 얼굴보다 곱다는 비유이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唐나라 楊巨源이란 이는 城東早春이란 詩題로 다음과 같은 七言絶句를 지었다.

詩家清景在新春 綠柳纔黃半未勾
若待上林花似錦 出門俱是看花人

새봄의 맑은 경치 버들눈 막 푸릅제니,
秘苑에 꽃이 피어 비단처럼 흩날리면
문밖은 온통 덮이리 꽃을 구경하는 이로.

산뜻한 새봄 경치를 볼 양이면 푸른 버들가지와 눈에 겨우 누른 빛이 될까 말까 할 무렵일지니, 만약 上林(秘苑)에 꽃이 비단같이 흐드러지게 필 때를 기다려 門을 나서면 모두 꽃을 보는 사람으로 그득차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詩는 人材를 가려 뽑으려면 그 싹수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할 것이요, 그 才能이 완전히 드러난 뒤에는 이미 때늦음을 비유한 것이라고 解說者는 말하고 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미리 알아차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나친 약삭빠름도 좋지 않지만 準備性은 늘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다. 先頭에서 물살을 헤쳐 나가는 水泳選手처럼 초조감과 헐빠짐 없이 悠悠히 人生을 건너감은 좋지 아니한가.

二月花, 제철을 찾아 二月에 피는 꽃은 그리 흔치 않다. 요새는 요술장이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꽃이든 피우듯, 花園에는 四季의 꽃이 늘 준비돼 있으니, 마치 常夏의 고장 하와이에서라도 사는 느낌이 든다.

母校 冠岳 캠퍼스 本館곳곳에서, 그리고 무슨 行事때에도 각기 그 경우에 어울리는 觀賞木이며 꽃들을 볼 수 있다. 春秋子는 이러한 갖가지 훌륭한 花卉 供給의 神秘를 캐려 어느날 일부러 冠岳캠퍼스로 構內 溫室을 찾았다. 50m길이에 7、8m폭은 되는 비닐하우스 두어채 안에 어느 칸엔 煉炭난로를 피우고, 어느 칸은 자연 溫度로 꽃모종이며 苗木도 기르고, 각종 花盆을 가꾸고 있었다. 어느 것은 나들이 동안 水分과 溫度의 不適으로 幾至死境이었다가 친정으로 돌아와 蘇生해 가는 것도 있었다.

화려한 꽃을 머리에 그리면서 찾아간 春秋子의 눈에는 꽃은 띄지 않고 荒涼하기만 했다. 管理人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꽃이 피고 좋은 것은 연방 交替해 나가니까, 이곳은 이렇게 쓸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화려하게 활동하는 子女 뒤에서 허술한 차림으로 일에 열중하는 어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결코 規模가 작지 않은 이 비닐 溫室 속에서 管理人의 손길로 제각기 봄을 기다리는 수많은 꽃들은 百花齊放의 화사한 꿈을 펼칠 날이멀지 않다.

二月花, 그 씨앗은 圖書館의 불빛으로 싹이 터 大韓民國을 환히 비추고, 꽃보다도 더 이글대는 丹楓을 여물리리라.

單大·科동창회 定總 막올라

家政大 필두, 忠南支部서도

和合·結束 다짐

▲家政大同窓會(회장 洪性也)는 1월18일 12시, 뉴월드호텔 두궁화홀에서 제35차 정기총회및 신임 회원환영회를 개최했다.

은사와 선후배동문 약 2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행사에서 洪회장은 『올해도 학부총업생 1백19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하게 됐음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로 여러동문들이 함께 만날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후 각회기 간사들이 매달 한번씩 모여동창회 발전을 위해 협조해준 공로를 치하했다.

또한 洪회장은 지난 1년동안의 주요행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했으며올해는 임원개편이 있음을 알리고 『새회장님을 모시고 동창회가 더큰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모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玄溫剛총무의 사업및 회계보고와 모교李基春학장의 모교현황에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11명의 박사학위취득회원에 대한 축하인사와 간사들에의한 각회기 소식이 이어졌다.

또한 임원개편에 있어서는 각회기 간사들에의해 선출된 徐炳淑(59년·漢陽大 가정대학장)동문을 새회장에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나머지임원선임에 대해서는 새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각회기의 장기자랑등으로 여흥을 즐기며 참석동문들은 그립던 옛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모처럼 서로의 情을 흠뻑 나누었다.

▲工大 機械同門會(회장 金善弘)는 1월10일 오후6시30분부터 인터콘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1백50여명에 달하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金회장은 새해인사를 한뒤 동문회 기금이 1억2천만원을 돌파하게됐음을 자축했다.

이어 모교 김동원교수에 의해 모교 발전상에 관한 근황보고가 있었으며 대우그룹의 지원으로 모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추진중인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에대한 조선휘소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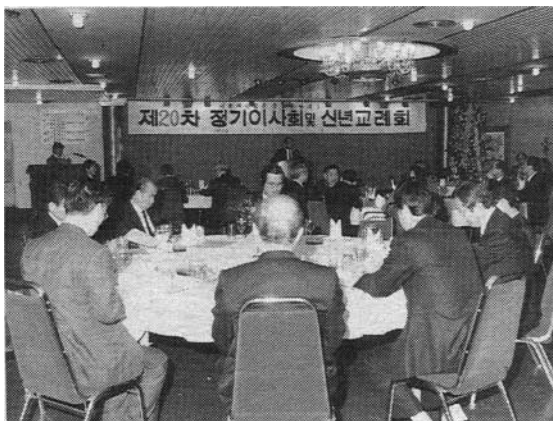
또한 지난해말 정기총회때 개편된 임원들의인사와 신임간사들의 소개가 있었다.

산업체동문들이 다수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동문들은 情談을 나누며새해에도 상부상조하며 동문회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것을 다짐했다.

▲法大同窓會(회장 金性洙)는 지난 1월16일 오후6시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동문 약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每年 『지난해엔 명부와 百年史자료집등을 발간하고 또 모교 중흥을 위한 법학연구동의 건립지원, 장학기금 5억 확보등 동문 여러분이 적극 호응해서 많은 일을 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금년에도계속해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李壽成학장의 모교현황 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각종 훈 포장 및 동창회 유공자에 대한 축하패및 기념패 증정이 있었다.



◇忠南支部 20차 이사회 광경

89년도 豫算 목표 달성

賛助金등 經常外수입서 好調

사무처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89년도의 동창회 총 수입은 4억5천2백65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1천5백70만원보다 8% 초과달성된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經常收入에서 회장단이 1천1백10만원, 예산에 9천만원(90%), 이사가 7천8백40만원(87%)이 입금되었고 일반회비는 1억3천3백50만원(예산 1억2천50만원)으로 1백6%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단과대학(원) 동창회의 분담금은 2백50만원으로 예산 3백10만원의 80%수준에 머물렀다.

經常外收入에서는 회보광고료가 1억2백40만원(예산 1억원)으로 1백2%, 수입이자가 1천2백만원(예산 5백만원)으로 2백50%, 찬조금이 8천1백만원 예산에 1억1천3백만원의 실적을 올려 1백13%를 기록했다.

이같이 지난해의 예산 초과달성된 것은 회보광고료와 동산대회 찬조금, 그리고 회관 5총冠倍홀에서의 예식수입등 경상외수입에서 큰 성과를 올린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名簿 발간작업 順調

3월20일 선보일수 있을듯

同窓會 창립 20수년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 會員名簿 발간작업이 실무진에 의하여 침 일찍부터 夜間작업까지 하면서 치밀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

17만5천에 이르는 同門의 졸업년도와 출신대학 및 과별 분류 그리고현주소와 직장및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착오나 누락없이 이것을 年代順으로 수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명부편찬실에서는 그동안 學籍簿 원본을 복사하여 단과대학(원)별 명부와 일일이 對査하여이를에 착오가 없도록 한글 토(吐)를 달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學籍簿에 없는 것이 單大명부에 있고 학적부에는있으나 단대 명부에는 없는 것도 있어서 편찬위원회 회의결과 학적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對査및 토달기 작업이 완료된 명단을컴퓨터에 入力시킨후 다시 일정한 양식(대학별 과별 년도별)에 의해 出力되어 職場및 住所찾기 작업에 들어갔다.

주소찾기가 완료된 명단은 다시 年度別 大學別 科別로 분류 편집되어 인쇄소에 넘겨진후 組版(菊倍版)이 된다.

册모양으로 조판이 되면 일반책은 보통 3校에서 끝을 맺으나 이번 의 새 명부는 5校까지 거치며 신중에 신중을기하고 있다.

명부발간 진척상황은지난 1월18일로 本文(약 2천6백여페이지)교정을 모두 완료하고 현재는索引 조판과 校正이 진행되고 있다.

명부편찬실의 실무담당자는 『명부발간 작업은당초의 계획보다는 약 2주정도가 늦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3월 20일쯤에는 명부가 나올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무리 작업인 索引교정에 여념이 없는 명부편찬실 모습

▲藥大同窓會(회장 禹東一)에서는 상임이사회를 겸한 신년교례회를지난 1월10일 서초동 藥師會館에서 가졌다.

이날은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새해덕담을 나누며 한해동안의 발전을 기원했으며 특히 상임이사회에서는 2월말로 예정된 90년도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醫大同窓會(회장 姜信浩)는 1월3일 오전 9시, 母校 제1교수회의실에서 신년교례회를 갖고 회망찬 90년대를 향한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學內敎授및 學外同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每年 學長및 病院長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 姜회장의 『새해에는 더욱더 동창회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는 간략한 요지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새해인사를 나누며 올한해도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결의했다.

▲동창회 忠南支部(회장 吳熙弼)는 지난 1월11일 오후6시 大田中央觀光호텔 회의실에서제20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의 사업계획등에 대해 논의했다.

沈大平(商大) 충남지사를 비롯하여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부터 회장을 맡아 1년을 지내왔는데 직장을 옮기는등 많은 일이 있어 支部 활성화를 위해 힘쓰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한후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원총회를 겸한 산대회를 개최하여 친목과 유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총회는 이어 孔永規대전지검차장검사를 비롯한 20명의 理事를 새로 추대하고 89년도의 결산을 이의없이 승인했다.

이어 회원친목총회, 장학금및 동창회 기금조성, 친선체육대회, 회원명부작성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올해의 예산 3천여만원을 확정했다.

서울大學校의 뿌리

美術大學

—韓 基 彦 ⑳

〈49년 師大卒·母校교수〉

藝大 미술學部서 53년 대학으로 승격

家族的 勉學분위기 學風으로 이어져

미술대학의 뿌리는 음악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藝術大學」에 있다. 예술대학은 1946년8월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과 함께 탄생한 단과대학이다.

그래서 예술대학에는 미술학부와 음악학부가 있었다.

예술대학 미술학부에서 「미술대학」으로 승격한것은 1953년 4월의 일이다. 당시는 아직 6·25동란으로 해서 부산 피난시절이었다. 그때 校舍는 美大의 이름에 못지 않게 아름다운 풍경이 눈아래 전개되는 부산 松島 뒷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대역시 휴전협정 체결과 때를 같이하여 1953년 여름에 서울還都가 가능하였다.

예술대학 미술학부 시절의 학부장은 張勃교수였는데, 그후 미술대학 초대학장 역시 장발 교수가 취임하였다. 그만큼 오늘의미술대학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교육행정면에서 남긴 그의 영향력은 뚜렷하다.

미술학부 시절 초기에는 繪畵科, 彫刻科, 圖案科가있었고 그후 美術科도 포함케 되었다. 한때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각과, 도안과, 미학과 등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였으나, 1949년 가을에 이르러 동양화과와 서양화과가 합병하여 繪畵科가 되었고, 도안과는 應用美術科로 개편한바 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금세분되어 東洋畵科, 西洋畵科, 彫塑科, 工藝科, 産業디자인科인 다섯 학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때 예대 미술학부 시절 이래있었던 「美學科」는 그간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人文大學의 한 학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미대에는 附設造形硏究所가 있다.

미술대학은 오늘날 관악캠퍼스에 음대와 나란히건물 양식도 여타 단과대학의 건축양태와는 달리 개성적인 면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초창기에는 校舍問題로 해서 남모를 고충도 적지 않았었다. 예대 미술부 개강 당시에는 당시 동숭동에 있었던 문리과대학 3층과 부속 발틀관 동북편 목조건물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1949년 4월에는 현 한국방송통신대학 구내에 있는 舊 國立工業硏究所자리(그 이전에는 京城工業專門學校건물)로 옮긴 적도 있다. 그리고 한때 舊京城醫學專門學校 校舍(한동안 馭醫大 교사였기도했는데)를 사용한 적도 있다. 나역시 美大와는 張勃학장 재임시였던 1954년에 한때 교내 강사로나가 「敎育原理」등을 가르쳤기에 당시의 미대 분위기와 건물 사정들을 엿볼수 있었다. 그때도 美大 재학생 중에 이미 國展에서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이 있었고, 어깨 너머에서나마 엿본 것이지만 그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權純亨교수는 은사이신賀羅 李順石교수를 회상하는 글에서 그가 다니던 시절의 美大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즉, 『선생님을 처음 뵈옵게된 시기는 1949년9월 필자가 母校 美大(註:엄격히 말해서 藝大 미술학부) 圖案科에 입학을 한때부터이다. 그당시 美大는 동숭동 文理大 구내에 있었는데 木造建物의 좁은 면적이었으나 매우 가족적이었고 주변의 古木밑에서 휴식시간이면 모여 앉아 얘기도 나누고 스케치도 하며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理想에 넘친 시절이었다』라고 예술대학 미술학부시절의 情景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이런 말도 보인다. 『美大生活은 교수님과 학생간에 개별적으로 특성있고 개성적인 獨創性을 요구하게 되므로 항상 개별적으로 지도받으면서 討議하며 지내다보면 모두가친숙하고 한 가족같이 느껴지는 때가 많다.(同窓會報, 106호)』라고 하였다.

이점 劉植俊교수 역시 그의 은사인 雨石 張勃학장을 회상하는 글에서 특이했던 일시 정경을 전해주고 있다. 즉, 『선생님을처음 뵌 것은 미술대학 美學科 人試考査場에서 이었다. 무슨 問題일까 초조한 受驗生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선생님께서 칠판에 한줄 英語를 써놓고 그냥 나가버리셨다. 「왜 美學科에 志望하느냐?」는 뜻의 出題인데 答은 반드시 英文으로 쓰라는 것이고 答案紙는 얼마든지 써도 좋고 얼마든지 지나도 좋다』고 해서, 오늘날 4년 협양식에서 보면 거의 상상키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당시에 있어서도 갈록없이 문제 하나라는것은 특이한 편이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답안지는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하는데 있어 당시 교수들의시험관을 엿볼 수 있다고하리라. 왜냐하면 시험의 취지는 학생들의 실력 측정에 있는 것이니 답안지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케 하겠다는 것이니 옳은 말이라고 하겠다. 나 역시 재학중, 시간은 무제한이고 노끈까지 준비해 와 무갈록으로 답안지는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하면서 학기말 시험을 치른 과목의 일이 생각난다. 그것은 그렇고, 위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이렇듯 어리둥절하고 어이없으면서도 참으로 멋진, 마치 科擧를 치르는듯한 신기한 試驗을 겪어본 일이 없는 필자로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수십명의 受驗生 가운데 美學이란 낱말을 英語로 안學대 초대학장이었던 玄濟明선생과 함께 쌍벽을 이룬 雨石이 남긴 짤막한 글 「思想戰과 藝術」은 그의 예술관 내지 예술철학의일단을 엿보게 한다.

이 글은 6·25특집 논문의 하나로 청탁된 것인데(1959, 大學新聞, 261호) 그러기에 제목도이렇게 된 것같다. 그러나雨石은 당시 미대학장으로서, 雨石의 영향력은 음미대 초대학장이었던 玄濟明선생과 함께 쌍벽을 이룬다고 가히 말할만 하다.

「思想戰과 藝術」은 그의 예술철학의일단을 엿보게 한다.

이 글은 6·25특집 논문의 하나로 청탁된 것인데(1959, 大學新聞, 261호) 그러기에 제목도이렇게 된 것같다. 그러나雨石은 당시 미대학장으로서, 『思想戰과 藝術』이라는 이 論題는 내가 택한 것이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다. 얼른 볼때 흥미를 끄는 점도 있어서 被動的으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전제하고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藝術 그중에서도특히 美術의 경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논증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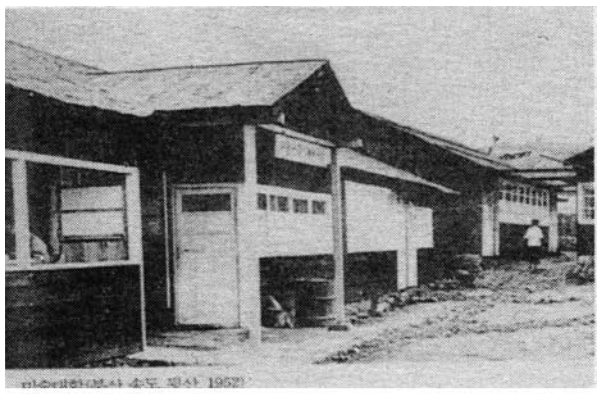
약간 긴 인용이 되겠으나, 주요 부분을 뽑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古來로 「眞」과 「美」는 상통한다는 것은 現代에있어서도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藝術도 思想의 표현인 까닭이다. 希臘의 「팔테논」은 希臘 사상의 산물이며 新羅의 石窟庵은 佛敎思想의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소련이 정책적으로 寫實的인 美術을 장려하는 것은 그들의 物質主義思想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혹시 어떤이는 현대의 순수예술은 아무런 宗敎에도 아무런 政治形體에도 가담하는 것이 아니니까 類가 다르다고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現代思潮의 표현인 것이다. 實存主義도하나의 사상이며 抽象主義도 하나의 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藝術은 「思想戰」에 참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美」는 「펜」과 같이 약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나 그 生命은 영원히 강한 것이다. 「나폴레옹」은 실패했으나 「베토벤」은 성공하였다. 대체로 藝術이 사용하는 武器는 미약한 것이나 그것은 그 순수성에 있어서 부엌보다도 강한 것이라고 하겠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의 愚鈍性을 免할 수 있어서 時空을 초월하여 남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무한한 목표에 도달한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술인들은 이 목표를에 워싸고 광범한 사상전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한 일은 現代藝術 특히 미술분야에 있어서 오랜동안의 暗鬪의 공으로 많은 건전하고 순수한 새로운 싹이 움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단편적이어서 「괴테」의 탄식과 같이 「斷片은 많으나 그것을 연결할 紐帶가 없다」고 할수 있다. 말하자면이 아름다운 새싹들의 溫床이 되고 背景이 될 花園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최근에 이르러 現代美術을 聖堂에 이식한 사실을 들면서 「이 現代美術의 花園이 훌륭한 開花를 보기를 원하는 바이다』라고 하였거니와 雨石의 바램은 오늘의 美大 동산에서 꽃피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 × ×



◇釜山피난시 송도 뒷산에 자리잡았던 美大의 초라한 모습(上)과 현재의 개성적인 校舍(下)가 美大 發展史를 말해주는듯 하다.

초창기 校舍문제로 고충… 현재 産業디자인科등 5개 學科로 편성

焦点 초대석

經濟 이대로 주저앉을수는 없다

卓熙俊

〈49년 法大卒·勞使問題任意仲裁協議會長〉

상호 共生가능한 구조적改革 추진토록

최근의 경제위기를 勞使關係가 불안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와 더불어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의 시각에서 노사관계를 보는 것은 산업사회의 緊張關係—勞動爭議, 生産實績低下—때문이다. 긴장관계는 기존 社會制度—勞使關係·企業經營—가 환경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현실과의 괴리가 생겼을 때 일어나므로, 어느 산업사회나 다같이 경험하는현상이다. 긴장관계의 해소는공권력을 동원하는 물리적 처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긴장관계의 해소는 노동문제를 그 근원에서 풀어가는 구조개혁 조치를 요하며, 복수의 대체안 가운데 「技術·市場, 政治 및 傳統的 文化要因」에 알맞는 「適應的 選擇」이 되어야 한다.

6·29 선언후 긴장관계의 해소를 위한 주요조치로 87년, 89년 勞動關係法의 개정 및 傳統的 文化要因」에 알맞는 「適應的 選擇」이 되어야 한다.

6·29 선언후 긴장관계의 해소를 위한 주요조치로 87년, 89년 勞動關係法의 개정이 있었다. 그들은 구조개혁이라는 안목에서 지극히 미흡한 것이었다. 근본적 구조개혁을 도외시한 채, 정부는 공권력에 의지하는 치안대책을 고집하고, 노동자는 일거에 모든 요구를 관철하려는 설급한 정치적 場外鬪爭의방향으로 치닫고, 企業은 기득권—과거 權威主義 政治體制하에서 생겨난 人事權·經營權—에 사로잡혀 있다. 각당사자의 이러한 자세가 사소한 긴장관계를 국가적 위기로 진전시켜가고 있다.

6·29 선언후 과도기적 흥분상태는 벗어났지만 勞動運動·勞使關係는 안정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더해가고 있다. 첫째, 노동조합 조직의다원화 현상이다. 종전 대기업의 기업별 혼합조합에 한정되었던 조직이 中小企業, 超大企業으로 확장되고, 영세사업장의 地域的 할동조합, 병원, 연구소, 교원 등 事務·專門職의 화이트 칼라조합이 출현하고 있다. 전국연맹도 保守·進步의 경쟁적관계를 전망케 한다. 조합운동의 다원화는 공업화의 진전이 필연화 현상이다. 종전 대기업의 기업별 혼합조합에 한정되었던 조직이 中小企業, 超大企業으로 확장되고, 영세사업장의 地域的 할동조합, 병원, 연구소, 교원 등 事務·專門職의 화이트 칼라조합이 출현하고 있다. 전국연맹도 保守·進步의 경쟁적관계를 전망케 한다. 조합운동의 다원화는 공업화의 진전이 필연화 현상이다. 종전 대기업의 기업별 혼합조합에 한정되었던 조직이 中小企業, 超大企業으로 확장되고, 영세사업장의 地域的 할동조합, 병원, 연구소, 교원 등 事務·專門職의 화이트 칼라조합이 출현하고 있다. 전국연맹도 保守·進步의 경쟁적관계를 전망케 한다. 조합운동의 다원화는 공업화의 진전이 필

세째, 勞勞紛爭의 현상이다. 組合民主主義·리더쉽의 미숙이 빚어낸 과도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네째, 共同交涉의 움직임이다. 기업별조합의 특징때문에 일본의 單産的 집단교섭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교섭기술의 미숙이광역의 소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불합리한 賃金引上基準이다. 88년 이래 기업은 生産性賃金, 노동조합은 最低生計費를 내세울 전망이다. 당연한 주장이다. 문제는 노사간 주장의 격차가 엄청나 공동교섭의 난항을 예상케한다는데 있다. 여섯째, 爭議戰略이 시사하는 노동조합의 體質轉換이다. 지난해 나타난 「賃金鬪爭과政治鬪爭의 連繫」 전략이나 과격투쟁으로 미루어 우리 노동운동이 경제적 「限界鬪爭」을 벗어난 정치적 연대투쟁으로 할 것이 뚜렷하여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 현상은 그 연장선위에 파국을 예견케한다. 오늘의 시점에서 각 당사자는 무엇보다도 「認識의 轉換」을 서둘러 서로의 공생이 가능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혁의방향은 노사 自律交涉 즉 산업민주주의의 正道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위에 노동생산성의증대 또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적 능률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李基春

〈65년 師大卒·母校家政大學長〉

家計는 消費의 주체… 主婦역할 매우커

경제기획원 및 한국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89년의 家計消費支出이 87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家計貯蓄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다고 한다. 또 상공부의 집계에 따르면 89년의 消費財收入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풍조가 초래한 피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과소비풍조는 이제 단순한 우려의 단계를 넘어서 國民經濟를 파탄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단계에까지 와있는 것같다. 과소비 또는 사치는 個人을 무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集團의 도덕율을 그르침으로써 社會를 무너뜨리는 파괴력까지 갖는다.

國民經濟를 구성하는 단위는 家計, 企業, 政府로서 家計는 消費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富의 소유자이며 동시에 所得의 처분자로서의 家計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과 같은 과소비풍조가 형성된데에도 가계의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없다.

裵茂基

〈62년 商大卒·母校 社會大교수〉

勞使관계 社會的 파트너로 생각해야

노사 어느 한쪽의 행동에 행동변화는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록 현단계에서 단기대응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풀어나가야 노사관계가 발전되고안정되는 노사관계로 정착시켜 갈것인가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은 사람마다 다른것 같다.

우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노사문제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게 마련이며 또한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활동,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경영개선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적 내지 이해대립적인 관계로 보기보다 공통의 이해관계 내지 사회적 파트너로보도록 해야 한다. 산업화의역정된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에서 기업내의 노사관계가안정되어야 한다. 곧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용자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규칙의 제정자, 공정한 감시자와 이해조정자의역할을 할 뿐 기업내의 구체적인 노사관계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사용자가나서야 한다. 일본과 독일이그래서 성공하였다. 우선 종업원에 대하여 그 고용과 복지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기업내의 인사·노무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비민주적이거나 차별적 요인을 제거한다. 그리고 인간중심의 경영을 함으로써종업원 스스로가 강한 소속감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노동조합을 진정으로 인정하고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기업가 내지 소유계층은 사적인 생활에서도 투기나 불로소득의 추구를 삼가하고 소비생활을 검소하게 하여 존경을 받도록 한다.

우리의 노사관계도 근본적으로 본다면 언제인가는 안정된 관계로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단계의 기업과 경제의 사정은 매우 우려할만하며, 그 보다 더 우려할사실은 노사가 모두 그 개선노력을 스스로에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다. 노사가 모두 자제하고 양보하되 사용자가특히 주도권을 가지고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정부는 법과질서를 지키도록하면서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촉구하고 지원해야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풍토를 만든 부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하며 특히 消費面에서 道德性이 회복되어야한다. 한 個人이나 家計의 消費는 他人의 消費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 이는 곧 消費의 依存性으로서 個人은 자신의 소비의 사회적책임을고려해야 할을 의미한다. 즉한 개인이나 가계의 消費結果가 국민경제, 환경공해, 이웃,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되려면 국민전체의 의식구조와 생산의 주체이고 企業은 생산의 주체이며 政府는 경제정책의 주체로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 家計는 貯蓄과 消費의 양면에서 생산을 좌우하는 힘을 갖는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소비시장이고 소비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家計이므로家計는 消費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富의 소유자이며 동시에 所得의 처분자로서의 家計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과 같은 과소비풍조가 형성된데에도 가계의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수백만원 수천만원하는 외제가구와 가전제품이 날개돋친듯 팔리고 외제 캐쥬얼용품 수입매장은 청소년들로 초만원을 이루며 어린이 생일파티도 호화로운 부페에서 하는 풍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호화혼주의 병폐 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현상이다.

딸홀리며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며 모아서 目標를 달성하려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한번에 획득하고 성취하려는 임시주의, 몰질제일주의 가치관은 이러한 호화혼주의 병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의 소비의 사회적책임을고려해야 할을 의미한다. 즉한 개인이나 가계의 消費結果가 국민경제, 환경공해, 이웃,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되려면 국민전체의 의식구조와 문화수준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健全한 價値觀으로의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이필요하다.

딸홀린 노동의 댓가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정당한 획득방법을 통한 소득을 추구하고 不勞所得을 지양해야하며 사치와 낭비에 대한 절제를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또한 消費生活面에서倫理的인 실천운동이 뿌리를내려야 하는데 소비의 주체인 家計가, 그리고 가계를 운영하는 주부들이 선구자가 되어 의식의 전환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消費生活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英文學 전공한 國樂界 元老

師弟對談

스승 李惠求
〈31年 京城帝大卒
前 母校音大敎授〉

제자 權五聖
〈63년 音大卒
漢陽大敎授〉

"權선생 활약 늘 믿음직 스럽네"
"학문적 姿勢 저희들에 큰 敎訓"
"妓生이나 하는것" 그릇된 社會偏見, 科 창설에 어려움 많았었지

▲權五聖: 지난 新正에 선생님께 인사 드리러 왔었는데 마침 계시지 않더군요. 그리고 舊正때도 뵙지 못하고 이제서야 새해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쪼록 만수무강하십시요. 모교 同窓會의 주선으로 오늘 이렇게 찾아 뵌것은 선생님께서 모교에 국악과를 창설하신후 오늘날까지 한국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신공로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경성제국대학에서 英文學을 전공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분야와 악에 전혀 다른 우리국악에 관심을 갖게된계기가 있었다면 어떤것이었습니까.

▲李惠求: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이런자리는 사양하려고 했는데 권선생이 이렇게찾아왔으니 어쩔수가없군.

내가 31년에 경성대학을 졸업하고는 오늘날 KBS의 前身인경성방송국(JODK)에서 방송국장 일을 보게 되었지. 그때 音樂특히 國樂프로그램을제작하게 되면서 우리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것이지. 당시의방송체제가 전국중계방송이었는데 여기서 全國이란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이지만 우리나라와 日本이 합병되었을때니까 두나라전역을 뜻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쪽에서는한국 고유의 특색을 내보이기 위해 국악프로를 많이 만들었는데이런 방송을 내보낼 때마다 일본의 청취자들을 위해 이를 해설하는 글을 써서 일본의 각 신문사에 보내야하는데 내가 그일을 맡게 되었지.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에 대한 자료를 구하게 되었는데 내가 당시 자료로 삼았던 책은 몇몇 외국학자들이 저술한 것으로 1922년에 나온 Maurice Courant의 「대불음악백과사전」과 Andea Eckarf의 「Die Koriean-ische Musik」, J. Boots의 「Royal Asiatic Society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 Musical Instruments」등이로 우리나라사람이 저술한 책은 단 한권도 없다는데 실한 부끄러움을 느꼈었어. 그런 이유로 국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구체적으로 깊어져 간거야.

▲權: 그래서 선생님께서 처음 학술논문으로 발표하신게 1943년에 나온 「梁琴新譜의 四調」였지요. 우리로서는 최초로 근대적인 학문방법에 의해국악에 관한 체계적인학술연구서를 지니게 된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 내가 그 논문을 쓰게 된것도 四調란 羽調니 界面調니하는 것인데 옛날 老人들의 얘기나 古書를보면 우조는 壯하고 壯大하며, 계면조는 哀하고 슬프다라는 것만있지 그것이 어떤 음조인지는 전혀 알수없기 때문에 마치 체증걸린 사람처럼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이를 실제로 고악보에기해서 설명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쓴것이지. 그때만해도 국악을 악보에 기해서 연구한 것이 없었어.

▲權: 그후로도 57년에 「한국음악연구」라는 최초의 국악연구논문집을 발간하신 것을 시작으로 「한국음악논총」, 「한국음악논집」등 많은저서를 펴내시면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3·1문화상 학술상과 예술원상을 수상하셨으며 59년에는 모교에서 국악박사학위를취득하신데이어 英國의 Durham대학에서 명예음악박사학위도 취득하셨습니다. 이처럼 국악뿐 아니라 관련분야 전반에 걸친폭넓은 학문영역을 형성하시면서 성생님께서는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 더 많이 알려져 세계적인 명성도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勞苦가 큰 밑거름이되어 모교 國樂科가 지난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전국 14개 대학에 국악과가 개설되는등 잔촉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李: 다행히 여러사람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국악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되어 가고 해마다 전국에 걸쳐 국악을 전공한 졸업생들이 4백명 정도 배출되고 있으니 이제 국악과는 튼튼한 궤도에 올라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은 셈이지. 하지만 30년전 국악과를 새로 만들기까지에는 어려운 점이한두가지가 아니었어. 우선 국악이란 妓生들이나 하는 일로만 여겼던 당시 사회의 편견때문에 大學에 國文學科·國史學科가 있지만 國樂科가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로 여겨져국악과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었지. 그러나 외국의학자들이나 해외교포들이 모교 음악대학을 참관하고는 「이게 어디서 양의 음악학교지 한국의 음악학교냐」며 당시 음대학장이었던 玄濟明박사에게 가야금을 기증하는등 국악을 권장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59년 정식으로국악과를 개설하게 된것이지. 그렇지만 그후로도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어. 그중에서도 모집정원 50명을 다 채울수 있는 지망생이있겠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이자 고민이었고 국악을 제대로 공부한선생이 없다는 것이 또 한가지 걱정거리였지. 그래도 장사훈 황병기·한말숙선생님이 비록 국악을 전공하지는않았지만 국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학식으로교수진으로 활약하며 많은 수고를 해주셨지.

▲權: 저도 새삼 그때 생각이 납니다. 국악과를 제1지망으로지원한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저를 비롯하여 金東弼, 지금 在美중인 金東弼, 시립국악관현악단거문고 수석연주자인 曺偉敏, 모교음대교수인 李在淑, 한양대음대학장으로 있는 金溶鎭등창등이 그래도 소신지원을해 이제까지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무슨일이든지 정확성을 기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기억이납니다. 또 글을 쓰거나 말을 할때 主語와 述語의 사용을 명확히하라는 가르침이 제가지난 30년동안 공부를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李: 그랬었나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군. 그리고 이기회에 후학들에게 한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은 내가전에 영국의 Durham대학에 내논문을 英譯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국학자들이 그걸 보고 『정말한국에도 고악보가 있느냐』고 물더군. 서양인들의 사고로는 악보가 있는 나라는 진보한 나라이고 악보가 없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로여겼는데 우리나라에 악보가 있었다는 것에 반신반의하는 거였지.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문화재이자 학계의 중요한 자료인 악보를 보다 많이 수집하여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일이야. 이제는 전국 14개 대학에 국악과가 있어 자료수집이 더욱 열심히 연구해보다 풍성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네.

▲權: 잘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선생님께서 독보적인 연구업적을 이루셨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섬세하고 폭넓은 학문영역과 늘 저희들을 감싸주시는 포용력을직접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신문화연구원의 객원교수로도 활동하시고 모교 대학원에도 출강하시는등분주한 날들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李: 이제는 그만쉬려고 했는데 이 늙은 사람을 아직도 필요로 한다니 고마운 일이지. 내게 있어서 학문을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안정을 찾는 것처럼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통로이고 모든 학문을 하는 재미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네. 이게 곧 학문을 하는 기쁨이겠지요.

▲權: 결과적으로 오래도록 건강하신 모습으로 학문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李: 제자를 선생도 기른 한양대에서 한국국악회 장직도 맡아보며 국악계의 핵심적인 인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생각하고 믿음직스럽게 늘 있네. 그러나 人生이나 學問이 다 1백미터 아니라 단거리 경주무르도록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

▲權: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서울대에 출강하면서 선생님께서 오시는 날에 맞추어 모시고 점심식사도 대접하고 건강하신지 문안도 드릴수 있다는게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李: 나도 학교에나 가게 되면 강의하는것보다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겁고 있는 재미가 훨씬 더 크다네. 사람이 그리워져 아무튼 요즘 현대사회는 훌륭한 젊은이들을 보내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인것 같애. 그렇기 때문에 느린 음악을 즐겨 들으며 즉국악을 즐기는 것이 마음 편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방법이라고 생각은 좋은 권선생 생각은 어떤가.

▲權: 그렇습니다. 현재 전세계에 남아있는 음악중에서 우리 국악이 가장 느린 음악일 것입니다. 현대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느린 우리의 국악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될일이겠지요.

오늘 장시간동안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덕스런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오

◇師弟間에 대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무척 정겹게 느껴진다 오른쪽이 스승인 李惠求박사.

醫學界의 巨星 峨影 成者晙 선생님

잊을 수 없는 스승

—글·金 基 永
〈59년·醫大卒·第一醫院長〉

『不義와 妥協하시지 않으신 선생님. 번득이는 天才性과 넓고 깊으신 學問을 지니셨으면서도 늘 당신의 無知를 걱정하시던 선생님. 弟子들과 知人들을 그리도 끔찍이 사랑하시고 당신 몸처럼 돌봐주셨으며 正道施仁의 인간되도록 이끌어 주시던 선생님…下略』

이글은 지난해 9월에 타계하신 필자의 영원한 스승이신 峨影 成者晙교수의 추모비 내용의 일부이다.

筆者의 젊은 시절인 醫科大學生때부터 50줄의 후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30년간을 마음속의 지주로서, 행동의 價値標準이 되고있는 成者晙선생님을 생각할 때면 필자는 아직도 눈시울이 축축해지며, 코끝이 큰해오는 감정을 감출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後學들에게 세상을 하직하시던 그날까지 양심의소리를 들려주시던 선생님은 忠南 禮山生으로 京畿高等學校와 서울醫大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美國 미네소타 州立大學校 大學院을 수료하셨으며 1953년 서울醫大 解部學敎室 助敎로 學校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88년도까지 35년간을 학문연구와 後學養成에 일생을 바쳐온 참 學者요, 大學者로서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로이 「解部學」이란 학문을 이끌어오신 이 나라 의학계의 巨星인 것이다.

이러한 선생님을 필자가 짧은 글로 감히 얘기할수 있을까 싶으나 진솔한 선생님의 삶의 흐름을 유추해보고 後學들에게 하나의 教訓으로 심어주고자 몇가지 기술해 보고자 한다.

醫學에 있어 「解部學」은 기초중의 기초학문이다. 그래서 그 분야는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구석구석 두루 살펴야 할 일이 많은 學問이다. 속된 말로 醫學界에서는 생기는 것 없이 일거리만 많은 골치아픈 곳으로 통한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알파」가 있지 않느냐고 굳이 묻는다면 갓 들어온 醫大學生에게 해부학교실의 선생님 얼굴은 무서운 도깨비로 비친다는 그것이다.

解放전후를 통해 서울醫大 해부학교실의 수준은 日本의 東京, 京都醫大와 더불어 동양권에서는 최고의 수준이었고, 학자들 또한 최고의 학자들이었으며, 일제때 日本당국은 해부학교실에 공급되는 시험재료의 제공을 위해 국가비밀에 속하는 제도까지 있을 정도로 모든 여건과 지원, 學問的 발전은 가히 世界的이었다.

이러한 든든한 敎室이 6·25로 인하여 졸지에 폐허가 되었으니 수복후에는 강의를 진행하기조차도 어려운 현실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절인 1953년에 필자는 햇병아리 醫大生이었고, 선생님은 수석조교인 醫局長이셨다.

선생님은 우리가 入學하자마자 1백40명의 학번, 이름, 얼굴을 모조리 기억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선생님의 奇行은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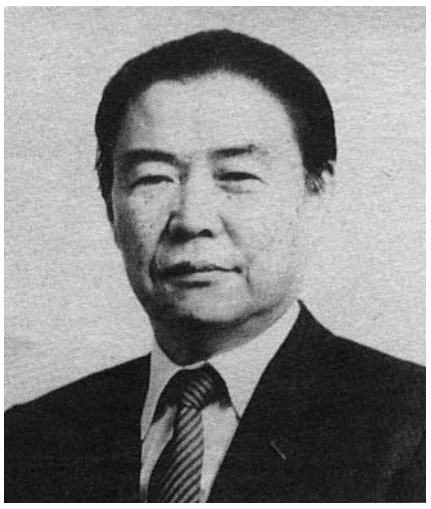
이당시 조직학실습에 용하는 현미경이 60대였다. 1백40명의 학생수에 비해 60대의 현미경은 한번의 기회라도 더가져서 재시험을 면하려는 학생들의 요구를 들 들어 주지 못해 묘한 「현미경 쟁탈전」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그 60대의 현미경도 내막을 알고나면 가막힐 정도이다. 60대의 현미경중 부속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은 겨우 몇대뿐이었고, 나머지는 짝도 제대로 맞지않는 부속을 주워모아 만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당시 醫大生들에게 붙리워지던 「Original+성기준 hand made현미경」이었던 것이다.

이 현미경은 선생님께서 수복직후 서울장안에서는 하루에도 餓死, 凍死한 사람들이 수십명씩 되건만 그 대단한 「人權」은 없어도 「死權」은 부서운 것이어서, 시체를 만져볼 수도 없는지경이었으니 표본 구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머리를 짜내어 창경원의 사육사를 포섭, 늙은 원숭이를 사서 발톱 새워, 시간에 맞추어 학생들의 실습에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실 선생님에게는 퇴근이란 것이 있을수가 없었다. 선생님의 집이라고는 학생실습용 시체실 뒷방이었고 筆者도 그 건너편 조그만 방에서 졸업때까지 기거하였다.



◇故 成者晙교수

해왔는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사회의 맨밑바닥 화장터인부들과 어울리며 홍정하여 얻은 시체를 신주모시듯 모셔다가 시체부패방지를 위한 고정술(청와대 시해때도 이팀들이 수고를 했다)이란 따분하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 6개월동안 정중히 보관한 후 임자가 안나타나면 학생실습에 사용했던 것이다.

후일담이지만 그때 그많은 시체중 단한건도 임자가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던들 당시 우리들은 해부학시간에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선생님의 그 열정에 다시한번 고개가 숙여진다.

京畿高·醫大 首席졸업한 秀才

醫師이전에 正道施仁의 人間됨 강조

부산피난시절 지리멸렬된 현미경의 부품들을 긁어모아 재조립한 것으로서 당시 오직 學生들의 조직학 실습을 시켜야 한다는 선생님의 집념아래 어둡고 추운 부산의 분교실습장 학구석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만들어 가져온 것이었다. 그때 그 현미경이 없었더라면 당시 학생실습이 제대로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열정을 여실히 읽을수가 있다.

또 현미경은 겨우 구비되었지만 정작 보고 배울 표본이 있어야 하건만 전쟁을 마친 學校에 日帝가 국가기밀로 통하여 보급, 제작한 표본은, 한점 찾아볼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시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당시 인체해부실습을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단한구의 시체도 실습에 사용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만일 실습에 사용하였다가는 법에 의해 「시체손괴죄」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서도 선생님의 학문열정과 정성이 나타난다. 선생님은 오직 學問의일념아래 당시 홍제동 화장터의 장외인부로 들어가 그들과 술도 마시며 교분을 맺은 다음 심장을 구슬러서 시체를 얻어와 실습에 임하게 했다.

당장 들키면 유치장행인데도 무슨 용기에서인지 그렇게 결사적으로 시체를 구하였는지 그 이유를 교재를 만드셔서 일일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원래가 달필이신데다 그 정성 또한 대단하여 글자 한자한자가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었으니, 이 교재는 지금 학생들에게도 하나의 神話로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다.

어디 출판일뿐이랴, 진짜 유인물 교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사모님까지 대동해서 표본 만들기 등 해부학실습이 끝난 토요일들이 존재하지않았나싶다.

그뿐만 아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교과서가 없었다. 설록 있다해도 값이 너무 비싸 몇몇 학생만이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형편을 간파하신 선생님께서는 손수 필경으로 원고 작성, 인쇄, 제본까지 도맡아 유인물 교재를 만드셔서 일일이 챙겨, 남은 살과 가죽을 벗겨내고 骨學실습에 쓰일 교재를 만드신 것이다.

實習재료 마련 위해 火葬터서 人夫 노릇

— 筆耕으로 만든 敎材, 後學들에 神話처럼 전해져 —

終傅聖事 받고도 學問의 熱情 식지않아

말이 쉽지 이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면 썩는 파정에서 너무 일찍 손대면 뼈추리기가 어렵고, 또 너무 늦으면 뼈가 녹아버리니 보통 정성이 아니고는 骨學敎材를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두내외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놓고자 유로울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기만 하다.

제자들이 못먹고, 학비에 쪼들릴때 성큼성큼 자기모든 것을 털어 도와주고, 오직 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오늘날 醫學界의 큰인물들이 도처에서 이나라 醫學界를 좌지우지하며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의 진면목은 紅塵의 名利에 오염되지 않고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신 孤高한 인품과, 일신상의 영화, 부귀따위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學者로서 學問과 후학들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신 殉敎者的 정신이었음을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

일찍이 어머님을 여의시고, 또 학창시절에는 결핵성 뇌막염과 척수염으로, 한창 일할 나이이신 66년도에는 갑상선암을 선고받은 재기불능의 상태에서 일종을 위한 종부성사까지 받으셨지만 學問의 열정만큼이나 강한 意志로 일어나셔서 선생님을 아끼는 선·후배, 동료, 후학들에게 큰 힘을 주시기도 했다.

임종전날까지 강의에 임하실 정도로 學問과 제자들을 사랑하신 선생님께서는 이 혼탁한 세상에 한줄기 청아한 빛으로 남아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으로 가억되리라 확신하며 筆者는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회의 사업에 작은 힘이나마 진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남기신 주옥같은 논문76편은 解部學界뿐만아니라 이나라 醫學界에 살아있는 참 學者의 숨결로 길이 전해지리라 보며, 63세를 일기로 他界하신 선생님의 삶과 철학은 언제나 우리들 가슴속을 훈훈히 감싸줄 것이다.

서알會

清涼會

師大출신 非敎育界동문으로 會員 2백여명 각계서 要職맡아 構成

모임探訪

清涼會는 금년으로창립 18년째가 되는 母校 師大출신 동문중에서 비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들의 모임이다.

지난 73년 동문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50여명의 동문으로 시작됐던 同會는 이제 2백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견실한 모임체로성장했다.

同會 회원들은 師大를 졸업한 동문들중 사무관이상의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원, 사기업 임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2회 이상의 전체 모임과 2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理事모임을 통해 友情을 돈독히 하고 있다.

◇林香淳전총무

◇文尙鎬회장

同會의 명칭은 그리운 마음의 동산인 용두동前사대캠퍼스내의 잔디밭이었던 清涼臺에서 따온 것으로 紅顔의옛 시절로 돌아가 학창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母校에 대한 향수를 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어진 것이다.

처음 창립할때는 초대회장을 맡았던 朴汀洙(母校師大同窓會 副會長) 동문을 비롯하여 郭厚燮(롯데캐논㈜ 社長), 閔丙俊(두산식품㈜ 社長), 趙鑄樂(변호사), 張陽秀(현대교역㈜ 社長), 文炳學(조달청 인천지청장·同會監事), 林香淳(용산세무서장), 崔仙吉(한강관리사업소장·同會 副會長) 동문이 會의 기반을 닦는데에 礎石이 되었으며 특히 趙鑄樂 동문은 지난해까지 만 10년동안 회장직을 연임하며 원만한 운영솜씨를 발휘, 會발전에크게 기여했으며 林香淳, 黃彩皓(세성전자㈜ 社長·同會涉外部長) 동문 역시 오랜동안 총무직에 봉사해 주위회원들로부터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현재는 文尙鎬(정답산업㈜ 會長) 4대회장을 주축으로 하여 李聖秀(서울대동창회 상임부회장), 洪性五(대성화원 원장), 孫晋奭(오아시스레코드㈜ 社長·同會副會長), 安商元(전국대학교교수), 李漢星(공항예식장社長), 李秉根(변호사·同會副會長), 羅貞煥(아남정밀㈜ 社長·同會副會長), 崔永相(대우기획조정실 전무이사·同會副會長), 許廣旭(삼성섬유화학부 사장), 張基玉(문교부 차관), 申性澤(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同會副會長), 李喜鎬(진일특수화학공업㈜ 社長), 朴興日(과학기술처안전심사관실 과장), 卞柱仙(대림성모병원기획실장·同會女性部長), 尹曦赫(㈜대성 社長), 金光植(상공부전자부품과장·同會財務部長), 李鶴男(한흥증권실장·同會總務部長) 동문이 구심점의 역할을 하며 會의 面面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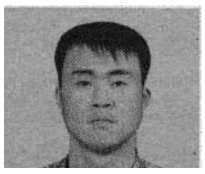
최근 同會에서는 회원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副會長을 10명내외로, 理事를 70명내외로 증원하는 한편 諮問委員을 10명내외로 신설하였으며 총무·조직·재무·섬외·여성부장 등으로 主務幹事를 확충하였다.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同會에서펼치고 있는 사업은 매우 활발하다.

먼저 母校 후배들에 대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4년전 모교사대 수석입학생이었던 崔貞煥양에게 매년 1백만원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등 크고작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또한 회원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慶弔事시서로 돕는 협조체제를유지 발전시켜왔으며 榮進同門에게는 회장단이 기념품을 만들어 직접 방문, 축하해주는 한편 퇴직동문에게는 심심한 위로연을 베풀어 주는 등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同會에서는 모임을 가질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開陳, 장시간 토론을벌이면서 자기계발의 유익한 계기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90년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한단일팀 구성을위한 남북체육회담의 수석대표인 張忠植(단국대학교 총장) 동문으로부터 「남북체육회담의전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듣기도했다.

李鶴男총무는 『초기에는 각기 다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들이 한데 모이다 보니 산만하기도 하고 서먹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이제는 오랫동안 서로어울리면서 가족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다』며 『올해에는 집행부가 새로 바뀐것을 계기로 상반기에는 매달 모임을 가짐으로써 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할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1월에는 신년하례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월26일에는 梁好民동문에게 「오늘의 정치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기로 했다며 힘찬 의욕을 보인다.


◇장용성회장

◇이영상총무

ROTC시절 진한情 계속 이어가

初創期 어려움 극복, 活性化에 주력

학군사관후보생들인 모교 R·O·T·C출신들로 구성된 「서알회」(서울대알오티씨회 약칭)가 지난 89년 6월 25일 창립되었다.

발족당시 25기를 주축으로 1백43명의 회원을 확보한 同會는 늘 가슴속 깊이 소중한마음의 고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교에서의학창시절을 회상하고 동문간의 친목도모와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취지아래 이 모임체를만든 것이다.

회원들의 대부분이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으며 서로다른 분야에서 바쁜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O·T·C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디딤돌로 하여 서알회를 통한 友情의 교류를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어느 모임이고 초창기일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同會는 이를 극복하면서 현재선후배 찾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선후배찾기가 어느정도이뤄지면 이를 토대로친목과 우의를 다지고同會 형성의 탄탄한 기반을 닦아갈 예정이다.

이후 조직이 더욱팽창, 활성화되면서 同會의 발전과 비례하여많은 선후배동문들이 入會하게될 경우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 단체로 성장해 나갈것이라는 기본계획에 따라 임원진들이 동문선주하고 있다.

同會의 회원들은 창시절부터 연마해온 「文武兼備」라는 학군사관후보생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어떤곳에서든지 가장 적극적이며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소속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한편 뛰어난 리더십으로 同會의 창립에크게 공헌한 황재호(人文大·삼성물산플랜트1팀) 동문은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면서 연락책으로서의 임무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이밖에도 강동구(社會大·대홍기획), 김동국(人文大·스포츠朝鮮), 명점식(社會大·삼성전자 업부본부), 신용욱(自然大·㈜대우), 윤광규(社會大·한미은행), 최유화(經營大·대우증권 업부개발부), 한지우(社會大·대한항공시스템부), 홍경호(人文大·㈜대우총괄회계부), 최락구(社會大·대신증권), 김연우(師大·인헌고교), 박인복(社會大·한전), 송재범(師大·목동중학교), 여창석(師大·당산중학교), 이병철(社會大·삼성전자 컴퓨터부문), 이인재(師大·대학원재학중), 정시영(社會大·부국증권), 하만기(人文大·대한항공서울여객지점), 박창성(師大·방이중학교), 임홍렬(經營大·한국투자신탁), 박요한(社會大·대한항공발권부), 박동선(農大·대한항공홀국과), 조기범(師大·개원중학교) 동문 등이 솔선수범하여 同會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모임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함께 21기생인 구본환(人文大) 동문과 24기생인 김영삼(社會大) 동문이 지난해 나란히행정고시에 합격함으로써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비록 同會는 87년卒業生들인 25기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까지 모교의 R·O·T·C를 거쳐간 동문은 약 8천명에 달해 그 성장 잠재력은 무한히 크다. 이같이 많은 선배동문들이 同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통해 지도편달을 해준다면 더욱기운차게 높이 일어서는 모임이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同會의 이영상총무는 『재학시절 힘든 특수훈련을 거치면서 남다른 끈끈한 정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더욱친밀한것 같다』며 『올해는 빈틈없는 연락망조성으로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모교와후배들에게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계획』이라고 한다.

졸업당시 少尉로 임관하면서 그들의 상징인 푸른빛반지를 나눠끼며 하나임을 확인했던 同會員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더욱 단결된 힘으로 90년대의 主役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알회에서는 많은 R·O·T·C출신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는 751-2644 황재호동문)

▲崔基哲(31년 師大卒·母校名譽敎授)=南韓에있는 1백45종의 민물고기를 모두 수록한 「한국의 민물고기」란 책을 최근 펴냄.

▲李杜鉉(50년 師大卒·前母校師大敎授)=최근 수필집 섬격의 「宜民堂隨配」를 한샘에서 펴냄.

▲宋三錫(52년 商大卒·모나미社長·本會理事)=최근 문구전시회를 참관하고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日本을 다녀옴.

▲金瑞鳳(54년 美大卒·韓國美協會長·美大同窓會長)=1월 16일부터 29일까지 吉林省 延邊조선족자치구 청년연합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조선족 韓人미술작품전및 작가들과의 견을 교환하고 귀국.

▲李鎬汪(54년 醫大卒·高麗大醫大敎授·本會理事)=최근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韓國科學賞 연구장려상(연구장려금 年2천만원씩 3년간 지급)을 수상(생명과학분야).

▲金蕃弘(55년 工大卒·起亞産業社長·本會副會長)=최근 京畿道 華城에 있는 제2공장에서 起亞45년史를 개최.

▲金容善(56년 工大卒)=최근 럭키금성그룹 硏修院長에서 金星通信 사장으로 승진.

▲李範昌(56년 工大卒)=최근 起亞産業 부사장에서 대표 이사부사장으로 승진.

▲李承源(56년 工大卒·本會理事)=최근 太平洋電子 사장으로 전임.

▲尹鍾爀(57년 文理大卒·弘益大敎授)=최근 台北市에서 개최된 제2차 亞洲作家會議에 참석, 「90년대에 있어서의 亞細亞文學의 발전展望」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귀국. 돌문은 월간문학지 「문학 공간」의 편집고문도 맡음.

▲金斗煥(57년 法大卒·崇實大敎授)=최근 美國 캘리포니아大우주宇宙法연구소 객원교수로 초청을 받아 1년간 연구활동차 1월15일 출국.

▲韓壽生(57년 法大卒)=최근 환경청 차장에서 환경처 차관으로 승진.

▲吳德均(57년 商大卒·忠南大總長)=1월 5일 洪城郡 문화회관에서 忠南大 經營大學院 현판식및 입교식을 가짐.

▲李判永(57년 商大卒·신보창업투자代表理事)=최근 모교 工大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제2기 동창회장에 피선.

▲鄭夏五(58년 工大卒)=1월3일 現代엔지니어링 副社長에서 대표이사 社長으로 승진.

▲金鎭炫(58년 文理大卒·東亞日報論說主幹)=최근 모교 훈륜럽 信永硏究基金이사회에서 5대 이사장으로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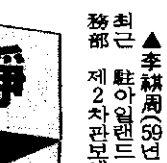
▲朴鳳煥(58년 文理大卒·손해보험협회장)=최근 「現代資本主義, 그 고뇌와 經綸」 경제사회개발원이 제정한 제1회 자유경제출판문화 활론로 全

▲崔洛賢(58년 法大卒·本會理事)=최근 啓星製紙 사장에서 그룹 副會長으로 승진.

▲朴甲洙(58년 師大卒·母校師大敎授)=최근 발족한 放送委員會 언어심의소위원장으로 선출됨.

▲金埰謙(58년 商大卒·本會理事)=1월18일 雙龍洋灰 사장에서 그룹 회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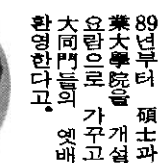
▲李桓儀(58년 師大卒·百濟文化硏究院 고문·本會理事)=최근 自由中國정부 초청으로 대만정치대학 부설 대陸문제학술간담회에 참석코 귀국.



▲柳宗夏(59년 文理大卒)=최근 駐E C 대표부 대사에서 外務部 차관에 임명됨.

▲李祺周(59년 法大卒)=최근 駐아일랜드 대사에서 外務部 제2차관보에 임명됨.

▲李東熙(59년 文理大卒·國立서울産業大學長·本會理事)=89년부터 碩士과정인 서울産業大學院을 개설, 産學敎育의 요람으로 가꾸고 있는데 工大同門들의 옛배움터 방문을 환영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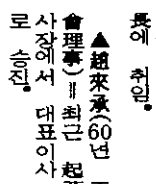
▲朴濟賓(59년 法大卒)=최근 東洋工專 校長에 취임.

動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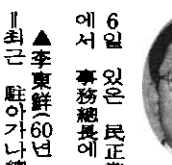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717) 8536~7

▲金潤泰(60년 師大卒·西江大敎授)=최근 신설된 同校敎育大學院 초대 원장으로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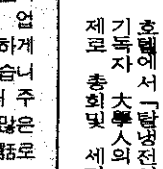


▲尹翊秀(60년 商大卒)=최근 高麗合纖 부사장에서 斗陽 社長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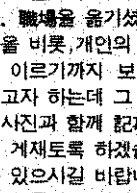


▲趙來承(60년 工大卒·本會理事)=최근 起亞産業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

▲朴俊炳(60년 文理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지난 1월 6일 있은 民正黨 당직개편에서 事務總長에 임명.



▲韓完相(60년 文理大卒·母校社會大敎授)=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1월12일 13일 이틀간 大田유성리베라호텔에서 「탈냉전시대에 있어 기독자 大學人의 사명」을 주제로 총회및 세미나를 개최



▲李東鮮(60년 文理大卒)=최근 駐아가나總領事에서 駐니가타總領事로 전보.

▲李在昌(60년 法大卒)=최근 환경청 장에서 교통부 次官으로 전임.

▲金宗雍(61년 文理大卒·母校自然大敎授)=최근 「格子準同型의 판별법」에 관한 연구로 한국과학상 연구장려상(수학분

▲安恭爀(62년 法大卒)=1월31일 財務部 제2차관보에서 영전.

▲韓永愚(62년 文理大卒·母校人文大敎授)=최근 열린 韓國史연구회 총회에서 새회장으로 선출됨.

▲康容植(63년 法大卒·本會理事)=최근 문공부 차관에서공보처차관으로 전임.

▲金泰球(63년 商大卒)=최근 大宇造船 부사장에서 社長으로 승진.

▲陳稔(63년 商大卒·本會理事)=1월31일 해운항만청장에서 財務部 次官에 취임.

▲徐柱仁(64년 工大卒·本會理事)=1월10일 三星電機 부사장급사장에서 社長으로 승진.

▲司空壹(64년 商大卒 前財務部長官·本會理事)=1월8일부터 11일까지 세계은행과 中國國家計劃委가 중국 廣州市에서 공동주최한 경제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주제를 발표.

▲尹永錫(64년 商大卒·前大宇造船社長·本會理事)=최근 大宇 무역부문 社長에 취임.

▲朴聖泰(64년 醫大卒·새서울病院長·本會理事)=醫師隨筆

▲愼鎬碩(67년 農大卒·朝鮮日報論說委員)=최근 중견언론인 관훈클럽 정기총회에서 제36대 총무로 선출됨.

▲玄基榮(67년 師大卒·小說家)=최근 창작과 비평사에서 장편 「바람타는 섬」을 출간.

▲李孝益(68년 經營大學院卒·三益樂器會長·經營大學院同窓會長)=1월1일자로 회사명칭을 三益樂器製造(株)에서 (株)三益樂器로 바꾸고, 90년대를 겨냥한 전문경영체제로 조직을 개편.

▲盧成泰(69년 商大卒)=최근 韓國開發硏究院연구조정실장을 지내다 第一經濟硏究所長에 취임.

▲李在明(70년 文理大卒)=최근 大宇自動車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金太文(73년 新聞大學院卒·前新聞大學院同窓會長)=1월 18일 쌍용양회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

掲示板

▲裵宗鎬(43년 文理大卒·乘谷思想硏究院長)=1월14일 오후8시10분 道峰區 雙門洞 한일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71세. 裵동문은 연세대 교수와 한국동양철학회장을 역임.

▲金完泰(56년 樂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13일 오전 우성3차아파트22동103호 자택에서 별세.

▲金商俊(52년 師大卒·서울市敎育鑑·本會理事)=喪配=1월12일 오후10시15분 서초동 우성3차아파트22동103호 자택에서 별세.

曺京植 초대 環境處長官

予算편성 기틀잡은 정통 經濟官僚

"환경問題해결에 온國民 同參 기대"

高度産業化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환경오염문제, 물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이는 선진국의 문제라고 여겼으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政府도 그 심각성을 인식, 지난 1월3일 環境廳을 處로 승격시키면서 환경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59년 商大를 졸업, 초대 環境處長官에 취임한 曺京植동문을 만나 환경정책에 대한앞으로의 구상을 들어보았다.

『經濟成長과 環境保全은 양립하기가 힘든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成長도 하면서 環境도 保全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兩者는 반드시 조화를이루어야 할것입니다』

曺동문은 環境處를이끌어감에 있어『앞으로는 環境汚染을 예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無公害 生産技術을 적극 개발토록 하는등 경제성장은 계속 하면서環境을 보전하는, 다시말하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정책을 펴나갈것』이라고 밝힌다.

25년간 經濟企劃院에서 쌓아온 경력탓인지 國家 環境政策의 접근방식이나 안목이 『巨視的이며 폭이 넓다』

曺동문은 모교 商大를 卒業한후 66년에英國 만체스타大學 大學院을 졸업, 3년간 駐英經濟協力官을 역임한 때문인지 어딘가 모르게 소위「英國紳士」같은 매너가 몸에 배어 있다.

經濟企劃院의 經濟協力局長·豫算室長을 거치는등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고 國防部·農水産部 차관보를 두루 거쳤으며 기획원 公正去來委員長(차관급) 등 요직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로서 폭넓은지식과 경력을 쌓아온 曺동문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힘있는 長官」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曺동문은 경제기획원 豫算室長시절 정부예산에 대한「豫算改革作業」을 단행, 합리적인 정부예산편성의기틀을 잡았고 82년 쌀값파동시에는 農水産部 차관보로 특파, 이를수습했으며 公正去來委員長시에는 大企業의 不公正 거래행위에 대해 따끔한 경종을 울림으로써 경제질서를 바로잡는등 가는곳마다 해박한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어려운 문제를해결하는「政策 解決士」로 소문나 있다.

『환경문제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만큼전국민이 환경문제해결에 동참하고 오염방지에 감시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曺동문은 우리나라의 여러환경문제들 중에서도 수질 및 대기오염, 폐기물처리등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물과 공기의 오염문제에 대해 특히 걱정을 하며 기대가 크다는점 문에 曺동문은『환경처로서의 숙적과 함께이제 90년대부터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이며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마실 수 있도록 八堂을 비롯한 전국 주요 상수원의 각종 오염원에대하여 철저한 규제를강화,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또 대도시 大氣汚染防止를 위해서는 『청정연료의 공급 확대와 자동차 배기가스 억제를 위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등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인다.

물흐르듯 논리정연한 언변으로 앞으로의 환경정책을 설명하는 曺동문의 모습에서 「쾌적한 環境」을 시현하려는 강한 포부와 의지를 엿볼수 있었다.

『동창회 행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同期會 이름이「双八會」인데 단기4288년에 입학해서 끝자리수 둘을 딴것이지요. 登山·바둑·골프등 서클 모임도 활발하고 북창동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曺동문은 동기로 朴昇전건설부장관, 李鳳瑞 동자부장관, 安承鼎소기업은행장, 朴相銀보험감독원장등을 꼽으며 앞으로는 동기회뿐만이 아니라 서울大 전체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약속한다.

독서와 운동이 취미이며 가족으로는 부인 朴善子(49세)여사와의 사이에 2男1女를 두고있다.

同門을찾아서

人事

▲徐廷旭(57년 工大卒)=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 품질보증단장에서 同社 제2부사장으로 영전.

▲申東澔(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1월 3일 조선일보부사장에서 새 스포츠-레저綜合紙인 스포츠朝鮮의 대표이사에 취임.

▲金潛浩(56년 法大卒·本會理事)=최근 이스턴관광 회장을 그만두고 코리아투워여행㈜를 설립, 대표이사에 취임.

▲沈明輔(58년 法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1월2일 酒泉中·綜高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피선됨.

▲李相赫(58년 法大卒·辯護士·本會理事)=사형폐지협회공동대표로서 최근 사형폐지운동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협회지인「사폐협소식」을 창간.

▲黃仁政(58년 文理大卒·國際民間經濟協議會副會長·本會理事)=東歐圈 4개국과의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를 위해 1월13일부터 28일간 동독, 체코, 유고, 불가리아를 방문하고 귀국.

▲徐亨錫(59년 法大卒)=최근 大宇무역부문 社長에서 그룹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

▲轍萬青(59년 醫大卒·母校醫大敎授·本會理事)=최근 열린 大韓醫用生體工學會 정기총회에서 새회장에 선출.

▲鄭永儀(59년 文理大卒·本會理事)=1월31일 韓國産業銀行 총재에서 중권감독원장으로전임.

▲李正浩(60년 商大卒·母校經營大敎授)=최근 열린 韓國會計學會 정기총회에서 회

▲金炳璧(61년 工大卒·本會理事)=최근 현대엔진 사장에서 現代중장비 사장으로 전임.

▲白重英(61년 工大卒·金星計電社長·本會理事)=최근 副社長에서 社長으로 승진.

▲李慶培(62년 工大卒)=1월3일 現代建設 부사장에서 現代石油化學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沈相哲(62년 文理大卒·韓國科學技術院敎授)=최근「스텔렌계열 올레핀의 光화학반응에 관한 연구로 한국과학상 연구장려상(화학분야)을 수상.

▲白昌基(65년 商大卒)=1월3일 仁川製鐵 전무이사에서 副社長으로 승진.

▲趙鎭民(66년 文理大卒·母校自然大敎授)=최근「고차원적 統一場이론에 관한 연구로 한국과학상 연구장려상(물리학분야)을 수상.

▲金榮石(66년 商大卒·大韓敎育保險社長·本會理事)=국민학교 테니스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월5일 한국테니스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음.

▲金潤鎭(61년 工大卒·本會理事)=최근 현대엔진 사장에서 副社長으로 승진.

▲黃仁政(58년 文理大卒·國際民間經濟協議會副會長·本會理事)=東歐圈 4개국과의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를 위해 1월13일부터 28일간 동독, 체코, 유고, 불가리아를 방문하고 귀국.

▲沈明輔(58년 法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1월2일 酒泉中·綜高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피선됨.

▲李相赫(58년 法大卒·辯護士·本會理事)=사형폐지협회공동대표로서 최근 사형폐지운동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협회지인「사폐협소식」을 창간.

▲徐亨錫(59년 法大卒)=최근 大宇무역부문 社長에서 그룹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

▲轍萬青(59년 醫大卒·母校醫大敎授·本會理事)=최근 열린 韓國會計學會 정기총회에서 회

▲李正浩(60년 商大卒·母校經營大敎授)=최근 열린 韓國會計學會 정기총회에서 회

▲金炳璧(61년 工大卒·本會理事)=최근 현대엔진 사장에서 現代중장비 사장으로 전임.

▲白重英(61년 工大卒·金星計電社長·本會理事)=최근 副社長에서 社長으로 승진.

▲李慶培(62년 工大卒)=1월3일 現代建設 부사장에서 現代石油化學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沈相哲(62년 文理大卒·韓國科學技術院敎授)=최근「스텔렌계열 올레핀의 光화학반응에 관한 연구로 한국과학상 연구장려상(화학분야)을 수상.

▲白昌基(65년 商大卒)=1월3일 仁川製鐵 전무이사에서 副社長으로 승진.

▲趙鎭民(66년 文理大卒·母校自然大敎授)=최근「고차원적 統一場이론에 관한 연구로 한국과학상 연구장려상(물리학분야)을 수상.

▲金榮石(66년 商大卒·大韓敎育保險社長·本會理事)=국민학교 테니스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월5일 한국테니스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음.

結婚

同窓會館 관악홀

▲윤형섭군·김정미(87년 師大卒)양=2월3일 오후3시.

▲송지섭(85년 農大卒)군·이명선양=2월4일 오후1시.

▲권택근(88년 工大卒)군·이선하(88년 師大卒)양=2월7일 오후2시.

▲조형택(86년 自然大卒)군·오수산나(88년 美大卒)양=2월10일 오후1시.

▲이철우(84년 工大卒)군·오지현양=2월10일 오후2시30분.

▲정효채(87년 人文大卒)군·김상애양=2월11일 오후12시30분.

▲김종병(87년 工大卒)군·김제희(87년 師大卒)양=2월11일 오후2시.

▲송승열(84년 工大卒)군·조근형양=2월17일 오후12시30분.

▲이승재(83년 社會大卒)군·최연희양=2월17일 오후2시.

▲김영수(88년 農大卒)군·정혜원양=2월17일 오후3시30분.

▲김학윤(83년 師大卒)군·안희경(86년 師大卒)양=2월18일 오전11시.

▲탁영섭(86년 工大卒)군·금동조양=2월18일 오후12시30분.

▲봉영채(86년 工大卒)군·안경님양=2월18일 오후2시.

▲조마해(83년 醫大卒)군·양수미양=2월18일 오후3시30분.

▲이효일(83년 經營大卒)군·차정화양=2월20일 오후12시30분.

▲조인성(社會大 재학중)군·백종선양=2월20 오후2시.

▲김종태(85년 人文大卒)군·윤미경양=2월24일 오후12시30분.

▲이상철(87년 社會大卒)군·장미혜양=2월24일 오후3시30분.

▲전진수(87년 大學院卒)군·김지영양=3월1일 오후1시.

▲안병용(88년 人文大卒)군·최미선양=3월1일 오후2시30분.

시30분쯤 新村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인 신부전증으로 별세. 향년59세. 金동문은 고향인 陰城郡에 韓一중·고등학교를 설립했으며 大韓藥師會 부회장등을 지낸 3선의원.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11월7일~1월10일까지
會員 11월7일~1월10일까지)

※ 人名밑의 원내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理事

◇工科大學

▲奇承準㊼ 한국시스템산업㈜대표
▲朴春遠㊸ 세광섬유㈜대표
▲申相豪㊽ 한국산업은행전산부장
▲李愚賢㊻ 중앙대토목과교수
▲鄭泰永㊻ 한국공업엔지니어링㈜
▲朴燦鎭㊺ 국회의원
▲裵鍾燮㊸ 오시오전자사장
▲宋明鎬㊶ 제일증권상임감사
▲宋三錫㊷ ㈜모나미대표이사
▲朱仁基㊷ 대한항선㈜고문

◇農科大學

▲金祥鎬㊷ 대풍삼사사장
▲尹勳煥㊹ 농림수산부장관
▲崔贊植㊷ 국토관리청장
▲洪性根㊶ 톰앤드하스사장
▲鄭麟杞㊻ 홍농종묘㈜부사장

◇文理科大學

▲鄭男㊹ 전국회의원
▲趙世衡㊻ 국회의원
▲韓相準㊽ 한양대총장

◇法科大學

▲金東圭㊻ 국회의원
▲李元宅㊶ 서울시교통국장
▲全應琯㊼ 삼양식품공업㈜사장
▲韓正鎭㊸ 변호사
▲金容元㊹ 대우전자㈜사장

◇師範大學

▲金鍾先㊿ 이대체육대교수
▲李大榮㊶ 명지대교수
▲鄭根黨㊽ 파주군교육장
▲鮮于煉㊷ 프레스센터사무총장

◇商科大學

▲高學模㊿ 대주무역상사사장
▲金承鎬㊼ 대덕공업㈜사장

◇藥學大學

▲裵信鎰㊾ 건강제일약국

◇音樂大學

▲金永春㊿ 청소년전도협회이사

◇醫科大學

▲權寧勛㊷ 권소아과의원장
▲金官曦㊾ 백병원내과
▲金東集㊽ 여의도성모병원내과
▲李寧均㊹ 부천세종병원
▲洪彰義㊼ 서울의대소아과

◇齒科大學

▲朴銖仲㊺ 상아치과의원장
▲吳文甲㊼ 오문갑치과의원장

◇保健大學院

▲余宗煥 한일치과의원장

◇新聞大學院

▲尹壬述㊾ 전투산업보사장

◇行政大學院

▲金寅東㊼ 서울시청줄림픽단장

◇環境大學院

▲許 完㊷ 노원구부청장

一般會員

◇社會大學

▲김찬규㊸ ▲박찬우㊹
▲송태윤㊷ ▲신영철㊻

◇經營大學

▲윤영규㊼ ▲최필선
▲류두규㊻

◇自然大學

▲권진혁㊾ ▲박춘동㊻
▲신홍철㊷ ▲이은구
▲박광식㊽

◇家政大學

▲권정숙㊼ ▲김광숙㊾
▲김혜송㊷ ▲문현자
▲박정자 ▲오미숙㊻
▲이숙영㊼ ▲조정례㊹

◇工科大學

▲이창형㊹ ▲박현준㊽
▲구경헌㊶ ▲권해욱㊼
▲권희용㊸ ▲김대연㊸
▲김대호㊷ ▲김민식㊺
▲김성찬㊿ ▲김웅성㊽
▲김재동㊹ ▲김종래㊺
▲김준동㊽ ▲김홍구
▲박광현㊽ ▲박노선㊾
▲박상윤㊼ ▲박석완
▲박인규㊻ ▲박중곤㊾
▲박태형㊿ ▲서상원㊺
▲서영훈㊸ ▲성관제
▲양동기㊺ ▲여 준㊻
▲오성환㊸ ▲오승민㊺
▲위재용㊿ ▲유공일
▲윤종곤㊶ ▲이광호㊿
▲이임택 ▲이창열㊹
▲이창하 ▲장철환㊾
▲최명준㊸ ▲선우중호
▲이동수㊽ ▲이영문㊷
▲이용원㊼ ▲이재윤
▲이재훈㊽ ▲이진식㊷
▲정동수㊶ ▲조동일㊿
▲조정현㊶ ▲최연홍㊸
▲최민수㊹ ▲최영석㊺
▲최종수㊹ ▲최현배㊹
▲최형섭㊼ ▲최홍재㊷
▲최특수㊷ ▲최세곤
▲하홍주 ▲한은규㊺
▲홍성책㊹ ▲홍재훈㊺
▲조홍구 ▲최문식㊽
▲표재호㊾ ▲한범식㊷
▲홍도천㊸ ▲홍성림㊹
▲황규원㊼ ▲김홍담
▲김형달㊶ ▲김회원㊹
▲강예묵㊼ ▲고학균㊹
▲임옥규㊸ ▲권진동㊽
▲김동근㊷ ▲김상연㊽
▲김병윤 ▲김시경㊽
▲김연근㊺ ▲김인상㊾
▲김진철㊺ ▲김태동㊺
▲김형달㊶ ▲김호일㊷
▲김홍연 ▲나상진㊼

◇農科大學

▲권오택㊺ ▲김호탁㊹
▲김경식㊷ ▲정창주㊼
▲김문식㊹ ▲김봉희㊷
▲김선국㊺ ▲김억년
▲김완기㊽ ▲김종훈㊷
▲김찬호㊺ ▲김태혁㊸
▲김홍진㊷ ▲남용희㊾
▲박재창㊷ ▲사공문㊾
▲서범수 ▲송영수㊸
▲양광남㊻ ▲이세희㊺
▲이현수㊹ ▲정두호㊷
▲이세희 ▲설동섭㊼
▲임용규㊸ ▲최한영㊿
▲하삼룡㊿ ▲홍재희
▲강정만㊾ ▲김만욱㊻
▲김병우㊺ ▲김송환㊿
▲김종욱 ▲김재원
▲김정국㊼ ▲김창수㊽
▲남영우㊼ ▲남일동
▲허 명㊿ ▲황재순㊹
▲강혜봉㊽ ▲김병우㊺
▲김수종㊻ ▲김정유㊽
▲김정현㊾ ▲김황식
▲박동기㊾ ▲박은독㊿
▲방종현㊷ ▲박종현㊷
▲봉종현㊻ ▲신미자
▲양 춘㊸ ▲양완모㊹
▲양경린㊸ ▲오덕근
▲원종순㊽ ▲유형진㊸
▲유재근㊺ ▲윤창구㊼
▲이광희㊸ ▲이동수㊷
▲이병화㊿ ▲이세구㊻
▲이옥경㊸ ▲전인영㊺
▲전인영㊺ ▲이명식㊽
▲이봉원㊼ ▲이양길㊻
▲이용재㊻ ▲이정수㊸
▲이정희 ▲이정태㊻
▲이정세 ▲이영규㊻
▲이석래 ▲이무구
▲정홍근㊻ ▲이우영㊻
▲이양길㊻ ▲이석현
▲이세구㊻ ▲이동우㊶
▲이춘재㊸ ▲이종길㊼
▲이종혁㊺ ▲이준영㊷
▲이진섭㊶ ▲이형규㊹
▲이희제㊸ ▲이희경㊸
▲장갑석㊼ ▲장홍열
▲정구홍 ▲정기환㊺
▲정영부㊽ ▲정재택㊹
▲조동현㊸ ▲조순환
▲최연상㊿ ▲홍선만㊼
▲황흥환㊼ ▲최홍근㊺
▲이은봉㊶ ▲황재운㊼
▲이재명㊿ ▲이주형㊾
▲이철수㊿ ▲이중원㊿
▲이장우 ▲이재영㊿
▲이태영 ▲이혜순㊹
▲장세기㊽ ▲전준선㊽
▲정병희 ▲조병창㊼
▲주영길㊶ ▲한영호㊷
▲한문사㊺ ▲황필호㊺
▲남정이 ▲박 령
▲박기정 ▲박순준
▲박윤배㊹ ▲박홍규㊻
▲배신환㊶ ▲사공정자㊸
▲손영림㊼ ▲송영각
▲송태훈㊹ ▲송종수㊶
▲신태보㊹ ▲양 춘㊸
▲양경린㊸ ▲양완모㊹
▲오도광㊾ ▲오덕근
▲양은숙 ▲유준수
▲유연무㊹ ▲유재근㊺
▲유형진㊸ ▲윤창구㊼
▲윤용달㊾ ▲이광희㊸
▲이건원㊿ ▲이동수㊷
▲이금세㊸ ▲이병화㊿
▲이동우㊶ ▲이세구㊻
▲이석현 ▲이옥경㊸
▲이양길㊻ ▲전인영㊺
▲정홍근㊻ ▲이명식㊽
▲이무구 ▲이봉원㊼
▲이용재㊻ ▲이양길㊻
▲이영규㊻ ▲이정수㊸
▲이정세 ▲이정희
▲이정태㊻ ▲이준영㊷
▲이종길㊼ ▲이진섭㊶
▲이춘재㊸ ▲이형규㊹
▲이희제㊸ ▲장명석㊹
▲장홍열 ▲전형대㊺
▲정구홍 ▲정기용㊾
▲정기환㊺ ▲정병희㊻
▲정영부㊽ ▲정익성㊶
▲정재택㊹ ▲정환국
▲조동현㊸ ▲조순환
▲최연상㊿ ▲최홍근㊺
▲홍선만㊼ ▲황재운㊼
▲황흥환㊼ ▲이은봉㊶
▲이재명㊿ ▲이주형㊾
▲이철수㊿ ▲이중원㊿
▲이장우 ▲이재영㊿
▲이태영 ▲이혜순㊹
▲장세기㊽ ▲장정웅㊷
▲전준선㊽ ▲정 량㊸
▲정병희 ▲정철수
▲조병창㊼ ▲조재두㊻
▲주영길㊶ ▲최인승㊸
▲한영호㊷ ▲한문사㊺
▲황필호㊺ ▲형진한
▲김명자㊹ ▲김명식㊹
▲김복기㊹ ▲김익수㊸
▲김종선㊿ ▲박남철㊷
▲박선환㊼ ▲박은미㊸
▲안정언 ▲유병인㊻
▲이명재 ▲이윤구㊿
▲이윤영㊽ ▲정희연㊻
▲진영선㊽ ▲허 진㊺
▲우혜령

◇美術大學

▲강영봉㊶ ▲김명자㊹
▲김복기㊹ ▲김익수㊸
▲김종선㊿ ▲박남철㊷
▲박선환㊼ ▲박은미㊸
▲안정언 ▲유병인㊻
▲이명재 ▲이윤구㊿
▲이윤영㊽ ▲정희연㊻
▲진영선㊽ ▲허 진㊺
▲우혜령

◇法科大學

▲권일웅㊾ ▲김토주
▲김성훈 ▲김무성㊽
▲김정유㊽ ▲김정현
▲김황식 ▲박동기㊾
▲박장수 ▲박재윤
▲박준양 ▲안강민㊹
▲오종철 ▲윤덕순㊸
▲이종민㊺ ▲장성규
▲정덕기 ▲정봉락
▲조규대㊼ ▲조납웅㊺
▲조성민㊿ ▲김 환
▲조홍은㊹ ▲황영호㊼
▲차주환㊾ ▲최승욱
▲한기일㊹ ▲홍종호
▲갈동훈 ▲고영기㊸
▲김 철㊸ ▲김광주
▲김광운㊾ ▲김권택
▲김기영 ▲김명식㊺
▲김부찬㊼ ▲김사영㊿
▲김영훈㊿ ▲김일덕㊿
▲김재일㊿ ▲김찬희㊺
▲김현철㊽ ▲나종훈
▲김재일㊿ ▲노명준㊶
▲남용희㊾ ▲김찬희㊺
▲노철호 ▲민중식
▲박제봉㊿ ▲박진순㊹
▲박현문 ▲박호섭㊿
▲부구욱㊹ ▲서 진㊼
▲서건익 ▲송경복㊸
▲송기복 ▲송영호
▲송한청 ▲신동희
▲신용한㊶ ▲신현근
▲안강민 ▲안경은㊽
▲안종윤 ▲원희장㊿
▲윤의준 ▲이경창㊸
▲이균용㊹ ▲이남진㊹
▲이용희㊸ ▲이재민
▲이충상㊿ ▲장상재㊾
▲장용태㊹ ▲장재식㊺
▲전영길 ▲전창영㊼
▲정만영 ▲정문화㊺
▲정영일㊼ ▲정종섭㊶
▲최승욱 ▲정종학㊼
▲정혁기㊺ ▲조영래㊼
▲조화연 ▲진동수㊼
▲차주환㊾ ▲차철순㊹
▲최수경 ▲한경수㊻
▲한병호㊼ ▲허 영
▲황명찬 ▲황종태㊺

◇師範大學

▲고영신 ▲고태흠
▲고홍선 ▲권류상㊽
▲김경석㊺ ▲김광열㊻
▲김성예㊶ ▲김승관㊺
▲김영실㊺ ▲김옥순㊶
▲김학수㊽ ▲나태식㊸
▲김태식㊺ ▲박규홍㊸
▲박근생㊼ ▲박금옥
▲박세원 ▲박수환㊿
▲박영희 ▲박진길
▲박홍식 ▲배진석㊹
▲상정기㊿ ▲서원임㊷
▲서정선㊹ ▲신윤철㊼
▲오경환 ▲유준영
▲윤동혁㊶ ▲윤재학
▲이산석㊷ ▲이창록㊹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해서 지난해엔 同窓會가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도 깊은 관심과 편달있으시길 바랍니다. 年會費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同窓會가 벌이는 事業에 일조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倍前의 성원을 바랍니다.

— 會費내역 —

- 一般會費 …… 1만원
- 理事會費 …… 5만원
- 常任理事 …… 10만원
  (회원 3천명 이상) …… 20만원
- 監 事 …… 30만원
- 副 會 長 …… 50만원
- 會 長 …… 100만원

文理大 2백22명납부 가장많아

이사는 42명으로 2백10만원 入金

▲이창원72 ▲전무섭 ▲조규완 ▲조종인57 ▲최영림60 ▲홍창표66 ▲김기득 ▲조은자 ▲강승호71 ▲강하구 ▲구사용56 ▲권영인 ▲김기섭 ▲김동필61 ▲김연옥65 ▲김옥희62 ▲김용범 ▲김용하 ▲김원선79 ▲김일병69 ▲김정규 ▲김정주60 ▲김종문73 ▲김지연 ▲김진권54 ▲김하권61 ▲김광렬 ▲김형길77 ▲남병옥76 ▲노재규77 ▲문계동 ▲박봉상63 ▲박수종87 ▲박영배72 ▲손영국74 ▲송동수71 ▲송승석55 ▲송재진57 ▲신은식64 ▲안명희 ▲양희수67 ▲유병옥43 ▲유오진62 ▲윤명렬57 ▲윤재봉60 ▲이강범61 ▲이계윤57 ▲이배희55 ▲이덕재56 ▲이세진53 ▲이시혁60 ▲이완기 ▲이용재63 ▲이종민 ▲이중희55 ▲이관기84 ▲이홍기66 ▲임덕순62 ▲장승호 ▲장일선62 ▲장주근52 ▲정덕영66 ▲정정도61 ▲정한식 ▲조범구65 ▲조선형63 ▲조재승56

▲장영희 ▲조건삼54 ▲조명래 ▲조종순56 ▲최길순 ▲최은경 ▲최정숙57 ▲강희동79 ▲김선중70 ▲황광수 ▲강종길66 ▲곽창신76 ▲구자현57 ▲권영순58 ▲김도기 ▲김관식 ▲김두영55 ▲김영순68 ▲김완복76 ▲김용선 ▲김우탁61 ▲김익수64 ▲김재형68 ▲김정자57 ▲김종대73 ▲김종태69 ▲김지태 ▲김진택75 ▲김학기50 ▲김학찬69 ▲김홍식54 ▲노옥섭70 ▲노재유 ▲민병춘 ▲박성호60 ▲박안납63 ▲박재룡60 ▲박영목 ▲송무영69 ▲송재주55 ▲신석환61 ▲신차균72 ▲안선준79 ▲원영옥66 ▲유예근56 ▲윤경석70 ▲윤용혁64 ▲윤재석65 ▲이강섭73 ▲이광희70 ▲이래화57 ▲이상돈72 ▲이승우66 ▲이영규63 ▲이용우71 ▲이종렬72 ▲이종상64 ▲이철수 ▲이해익 ▲임규형 ▲임재홍 ▲장시우 ▲장일홍58 ▲전시진 ▲정수룡60 ▲정춘혁 ▲조규권80 ▲조병두 ▲조영순 ▲조환근59

▲지윤호55 ▲최남신 ▲최종봉 ▲최헌구74 ▲최창숙72 ▲하화주 ▲한병목81 ▲허 련 ▲홍명혜65 ▲홍선표63 ▲홍원기71 ▲홍문식60 ▲황홍순

◇商科大學

▲강종호65 ▲경규한76 ▲경연소 ▲권찬갑 ▲권선주75 ▲김 열77 ▲김관식58 ▲김도기 ▲김두영55 ▲김영순68 ▲김완복76 ▲김용선 ▲김우탁61 ▲김익수64 ▲김재형68 ▲김정자57 ▲김종대73 ▲김종태69 ▲김지태 ▲김진택75 ▲김학기50 ▲김학찬69 ▲김홍식54 ▲노옥섭70 ▲노재유 ▲민병춘 ▲박안납63 ▲박성호60 ▲박재룡60 ▲박영목 ▲손영국74 ▲송무영69 ▲송재주55 ▲신석환61 ▲신차균72 ▲안선준79 ▲원영옥66 ▲유예근56 ▲윤경석70 ▲윤용혁64 ▲윤재석65 ▲이강섭73 ▲이광희70 ▲이래화57 ▲이상돈72 ▲이승우66 ▲이영규63 ▲이용우71 ▲이종렬72 ▲이종상64 ▲이철수 ▲이해익 ▲임규형 ▲임재홍 ▲장시우 ▲장일홍58 ▲전시진 ▲정수룡60 ▲정춘혁 ▲조규권80 ▲조병두 ▲조영순 ▲조환근59

▲최종봉 ▲최헌구74 ▲최창숙72 ▲하화주 ▲한병목81 ▲허 련 ▲홍명혜65 ▲홍선표63 ▲홍원기71 ▲홍문식60 ▲황홍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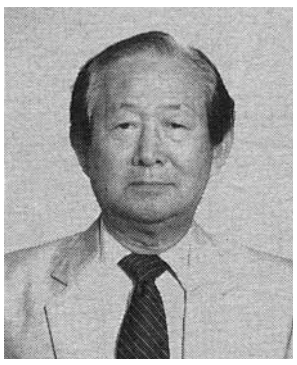
▲강종호65 ▲경규한76 ▲경연소 ▲권찬갑 ▲권선주75 ▲김 열77 ▲김관식58 ▲김도기 ▲김두영55 ▲김영순68 ▲김완복76 ▲김용선 ▲김우탁61 ▲김익수64 ▲김재형68 ▲김정자57 ▲김종대73 ▲김종태69 ▲김지태 ▲김진택75 ▲김학기50 ▲김학찬69 ▲김홍식54 ▲김옥섭70 ▲김재유 ▲민병춘 ▲박성호60 ▲박안납63 ▲박재룡60 ▲박영목 ▲손영국74 ▲송무영69 ▲송재주55 ▲신석환61 ▲신차균72 ▲안선준79 ▲원영옥66 ▲유예근56 ▲윤경석70 ▲윤용혁64 ▲윤재석65 ▲이강섭73 ▲이광희70 ▲이래화57 ▲이상돈72 ▲이승우66 ▲이영규63 ▲이용우71 ▲이종렬72 ▲이종상64 ▲이철수 ▲이해익 ▲임규형 ▲임재홍 ▲장시우 ▲장일홍58 ▲전시진 ▲정수룡60 ▲정춘혁 ▲조규권80 ▲조병두 ▲조영순 ▲조환근59

▲최종봉 ▲최헌구74 ▲최창숙72 ▲하화주 ▲한병목81 ▲허 련 ▲홍명혜65 ▲홍선표63 ▲홍원기71 ▲홍문식60 ▲황홍순

▲강찬익75 ▲경연소 ▲권찬갑 ▲김 열77 ▲김민식64 ▲김영근68 ▲김영복61 ▲김용원85 ▲김용선56 ▲김주희78 ▲김형일62 ▲맹정주71 ▲민경식54 ▲박무웅68 ▲박용선56 ▲박찬수 ▲백장현53 ▲배부환 ▲박운혁 ▲박양훈60 ▲박기순 ▲문덕만 ▲남영태69 ▲김택영52 ▲김적교 ▲김육근 ▲김영만 ▲김상희 ▲김광태 ▲권혁승 ▲김종휘 ▲김영주 ▲김용식 ▲김형구 ▲김 진 ▲김 진 ▲김 진

名譽敎授 칼럼

日記쓰기



金俊容
〈前 母校工大교수〉

『金교수님 오래간만이옵시다. 요즘 뭘로 소일하시오. 건강하시구學校에도 그대로 나가시고……』 인사로 의례묻는 말이다. 이에 알맞는 대답이 없다. 나도 停年退任한지 3년째로 군요. 그래 뭘 하시오』하고 묻는다. 대답할 말이 없다. 工科를 전공하던 교수가 은퇴하더니 도서관 6층에서 日本文學이나 中國文學 서적을 뒤지고 있다고 할수도 없고 특히 교수님들의 발길도 뜸한 藝京城帝國大學 圖書들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 말할수도 없다.

『뭘하긴, 日記를 쓰지요』라고 대답했다. 『日記라, 그건 또 뭣하려 쓰고있소, 이 바쁜세상에』 아마도 나의 고리타분한 日記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눈치다.

어쨌든 日記는 나의 生活속에 습관화되어있지 않으면 뭔가 쓰지 않으면 뭔가 빠진 느낌에서 매일이어가고 있다. 정년퇴임 후는 「靈谷日誌」라는이름을 붙였다. 일기장은 가족들이 선물로 공급해준다. 그들은 큰기있제 매일 쓰고있는 나의 일기를 지켜보면서 쌓이는 일기장에 많은 흥미를 느끼는 모양이다. 특히 戲曲을 전공하는 아들은 TV에연속되었던 「월튼네 사람들」을 연상하고 있는 눈치다.

「삶은 허무한 것이며 허물투성이 일니다. 一日三省의 마음으로 일기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61년간 일기를 써온 한학자 姜善成옹은 얼마남지않은 여생에서 보다 희망이 깃든 글로 일기장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일보 89·6·17) 며칠이 5대에걸쳐 1백17년간 쓴 대하일기 「渚上日月」은 1834年부터 1951年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다. 6대인 朴庭魯씨는 선대의 遺志를 받아 지금도 이 일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집안의 文名이 전국에 알려진 것은 2대째 羅巖 朴周大(1836?~1912年)때다. 「羅巖遺稿」는 8卷4冊으로 國史編纂委員會 史料叢書로 발간되어있다. 이 「渚上日月」은 단순한 私家日記가 아니라 나라일을 기록한 역사이기도 하다는 특색을 보게된다. 洋禍가 거듭되던 대원군시대에서 일제침략의 서막인 開港·開化期를 거쳐 일제 36년과 광복이후 6·25동란에 이르기까지 현대백년의 역사가 스란히 이 일기속에 담겨있다.

일기에 대한 가치평가는 쓰는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기 그 자체가 문학일 수도있고 또 중요한 지방사의 자료가 될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個人日記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른 문헌에서는 볼수 없는자료로 당대의 政治相·社會相 또는 經濟史의 용관계등 농촌경제와들가시세, 藩主의 농민정책, 흉포, 무사계급의무단정치등의 기록은 農民運動史의 연구에 재조명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나는 은퇴후 서울대 도서관을 비롯해서 각 대학 도서관을 즐겨드나들고 있다. 어떤때는 東京大學의 東洋文庫, 미국의 東洋圖書館, 台灣大學도서관에서 한때를 깊이 파고들때도있다. 가능하면 많은 자료를 보고싶고 기록해두고 싶어서이다. 특별히 하고 싶은 전공으로서가 아니라 湯顯祖와 李笠翁(李漁)의 中國 戲曲文學, 京劇, 中國의 神靈과 民俗學에 관한 것들이다. 여행하고 자료를 들추다보니 많은 기록도 해야하고 여행기와 더불어 당시 돌아가는 정치·사회·경제의 단면도 쓰게되어 기록의 양은 늘어만 간다. 누가 나의 일기를 읽어달라는 기대도 없다. 보고 느끼고 읽은 것을 정리하고 뿐이다. 때로는 뒤돌아보면서 一日三省의 마음으로 쓸때도 많다.

日記는 희고록의 역할도 한다. 87년 5월 28일자의 일기이다. 4·13조치이후 朴鍾哲군고문사건과 6월 민주항쟁의 긴장된 격동속에서 일기는 김찬국씨의 詩를 소개하고 있다.

「아훼여 살려달라고울부짖는/이소리/언제들어 주시렵니까?/호소하는 이억울한 일/언제 풀어주시렵니까?/…(中略)/법은 땅에 떨어지고/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29의 일기에는 「國民大和合특별선언문」의 신문 호외가 실리고 그때의 감격을 『원, 이럴수가 있을까』라는 천마디로 남북해소의 획기적 突破口이다. 民主化日程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날이후의 나의 일기는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가을의 일기는 옛 기록의 일기를 찾는 일로 보냈다. 朝鮮燕行便節의 道中見聞錄이다. 順治6년의 燕行記錄 「朝天日記」, 康熙51년의 「燕行日記」, 乾隆31년의 「湛軒燕記」와 「熱河日記」 등이다. 正副使 백여명이 平壤에서 北京까지 왕래하는 사이에 견문한 기록으로 특히 戲園의 구조, 興行, 上演脚本및 연출 등 상세하게 기록되어 京劇의 귀중한 자료로 되어 있다. 나는 이들의 燕行錄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문화에 술상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면서 韓·中관계를 찾는반면 이들 일기의 기록성과 중요성을 좀더 깊게 알고싶어서이다. 이런것이 도서관을 찾고 일기를 쓰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나의 생활이라고 보면 일기는 보다 차원 높은 생활의 기록으로 남을것 같다.

圖書館서 文獻보며 資料정리

一日三省의 마음으로 계속해와

길이여, 그대 손짓이여

柳岸津
〈65년 師大卒·母校家政大교수·詩人〉

떠나지 못하면서도 길 떠나는 꿈, 헤메이는생애를 살지못하면서도한정없이 헤메이는 꿈을 꾸는 것도 나쁘진 않으리라. 더불어 살면서도 이별하는 꿈을 꾸는 독신으로 사는꿈을 꾸는 등의 감정의 사치도 얼마나 청량한 세계를 맛보게 해주는가 말이다. 그래서더러 몽상도 상상이나이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간혹 엉뚱한 창조에 다다르기를 바라면서.

흰눈이 알맞게 덮인 겨울들길이나 산길을보면 소맷부리가 보일듯 말듯한 손짓이 부르는듯하며 길에선 내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물론 그때마다 나는 저 산길 들길 고갯길인들 떠나지 못하면서도 길 애를 살지못하면서도한정없이 헤메이는 꿈을 꾸는 것도 나쁘진 않으리라. 더불어 살면서도 이별하는 꿈을 꾸는 독신으로 사는꿈을 꾸는 등의 감정의 사치도 얼마나 청량한 세계를 맛보게 해주는가 말이다. 그래서더러 몽상도 상상이나이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간혹 엉뚱한 창조에 다다르기를 바라면서.

흰눈이 알맞게 덮인 겨울들길이나 산길을보면 소맷부리가 보일듯 말듯한 손짓이 부르는듯하며 길에선 내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물론 그때마다 나는 저 산길 들길 고갯길인들 떠나지 못하면서도 길 애를 살지못하면서도한정없이 헤메이는 꿈을 꾸는 것도 나쁘진 않으리라. 더불어 살면서도 이별하는 꿈을 꾸는 독신으로 사는꿈을 꾸는 등의 감정의 사치도 얼마나 청량한 세계를 맛보게 해주는가 말이다. 그래서더러 몽상도 상상이나이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간혹 엉뚱한 창조에 다다르기를 바라면서.

同門 수필

불볕뚫한 길을 가고있고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진정 길가는 참맛이 날것만 같다. 길이란 그 어떤 길도 두발로 한걸음씩걸어가는 느낌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발목이 시어 붉어트고 발바닥이 새큰거리며 종아리가뭉둥 부어 아파야만 제대로 길가는 것이지, 몇시간에 다 가버릴수 있는 넓고 곧은 고속도로나 단번에 수륙몇만리를 횡단해버리는비행기길은 진정한 길이 아닐 것만 같다.

흔히 학자의 길을간다거나 예술가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학문의 길 예술의 길을 택한 사람이 비행기나 기차를 타듯이 그의 학문과 예술의 길을 가고 저한다면 어찌 제대로 더려는 남이 찾아서닦아놓은 길을 편히 갈수도 있지만 더 많이는 길인듯 길이 없는 가시덤불 무인지경을헤메이면서 자기길을 만들고 찾아가면서 자기 바른 방법도 터득하게 되리니. 모름지기 길이 어떤 길이든지 바로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게 아닐까?

예수나 석가 그리고 공자도 마음의 길을찾아 땅위의 길을 떠났고 또 헤메이는 긴세월을 거쳐야 했다. 예루살렘성전모퉁이를 서성거리고 거친 들녘을 홀로 방황하는 소년예수, 청년 예수를, 그의 모진 마리아는 얼마나 걱정했던가. 그러나 그 러한 길에서의 방황으로써 세상의 크기를배웠고 마침내는 자신이 가야할 길과 모든 사람이 가야할 참길을찾아내지 않았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를 따라서 시인김림도 죽는 순간까지길의 손짓 그 유혹에몸을 맡겼다. 길에서 헤메이지 않았더라면 그 의 시편들이 진정 생명을 지녔을까? 에릭씨이나 에릭슨도 청년기 2년 유럽을 유회방 생글에 정신분석학도로서의 자기길을 발견하고 선택했다. 길떠나서 주리고 출고 서럽던고 생으로 단련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학문의 험한 길을 가는 고생도 극복할수 있었으리. 육신의 단련이 정신의 단련과 어찌 무관하랴.

지구뒤켠에서 생기는 일들을 앉아서도 보고 알수 있는 초스피드시대에 살면서도 어째서 인간정신의 길은 여전히 원시농경시대의 길이어야만 할까?

학문도 시도 개떡같이 하고있는 주제꼴에 도 나는 이따금 한번씩은 감히 꿈꾸어 본다. 제대로 한번 길에다 몸던져 헤메이고싶은 사치스러우나 진정은 꿈을, 다만 꿈을 어린 꿈꾸어 본다. 학문에도 시에도 너무 쩍송스러워서 말이다.

食事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生活이 秘訣

나의 健康法

印英煥 前母校師大교수

젊었을때 運動으로 体力 단련
"父母가 건강해야 子息들도 튼튼"

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한 몸을 지키며 오래 長壽하게 되기를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강법을 만들어 지켜나가는데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체질에 맞는 食習慣과 운동량을 정해 지킨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될 것이다.

모교를 정년퇴임한 老教授들 중에도 아직 정정한 모습을 지니며 젊은시절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분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印英煥(前 師大教授) 교수의 경우 79세의 나이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만큼 老益壯을 과시하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 78년 모교에서 정년퇴임한후에도 10년 동안 강사생활을 역임해 38년간이나 재직하면서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칠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체력이 밑받침되었던 것이다.

印교수의 요즘 하루 일과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뒷산에 올라 가까운 운동을 한다. 이때는 가벼운 운동뿐아니라 解放직후 익혔던 時調도 읊조리고 山行친구들과 함께 잡담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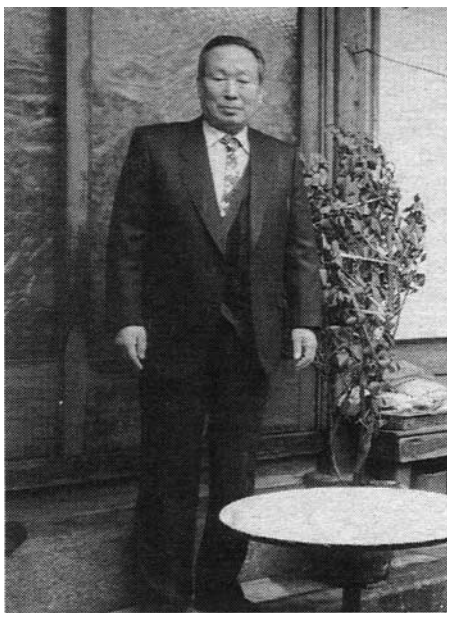
그런후 아침 7시30분에 조반을 들고 12시 30분에 점심식사, 오후 5시30분에 저녁을 들게 되는데 일정한 시간에 맞춰 빠짐없이 식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먹는 것이 제일 좋은 건강법이라고 소개하며 印교수는 『전에 시골에서는 소를 사려면 먼저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보고 건강한 놈을 골라냈었지. 이와 마찬가지로 잘먹는 사람이 건강하기 마련이야』라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될 강조한 후 遺傳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 『건강한 신체를 타고 나려면 父母를 잘 만나야 해. 건강한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를 이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우리 어머니가 壯士이셔서 이처럼 건강한가 봐. 나뿐만아니라 우리 형제 8남매 모두가 건강해』라며 어릴적 고향인 忠南 唐津에서도 힘세기로 유명했었다고 한다.

젊은시절 유도·씨름·역도등 다양한 운동경력도 갖고 있는 印교수는 한때 동경올림픽의 역도선수로 뽑혀 한창 훈련을 받다가 2차세계대전의 발발로 무산된 아쉬운 기억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도 졸업생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印교수는 제자들로부터 모든면에서 엄격하셨지만 친자식처럼 돌봐주시는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정정한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매사에 의욕이 넘쳐 흐른다. 마음은 젊은데 몸이 늙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印교수와 같이 人生에 대해 무한한 흥미를 지니고 산다면 영원히 늙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욱 淸新해질 것이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뒷산에 오르는 아침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本報구독신청은 702-2233

趣味生活

바둑篇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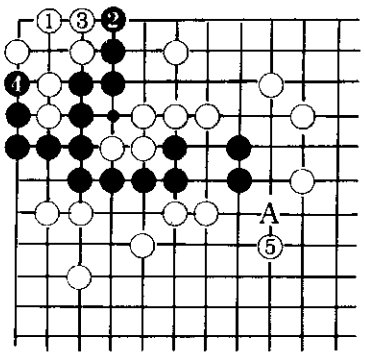
—朴 治 文

〈79년 人文大卒·世界日報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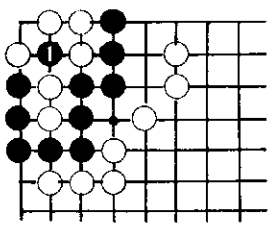
梅花六宮의 함정

다시 묘수풀이로 돌아간다. 「죽는 형」의 대명사격으로는 「귀曲四」 「五宮桃花」 「梅花六宮」이 있는데 이중 梅花六宮은 궁도가 너무넓어 프로조차 자칫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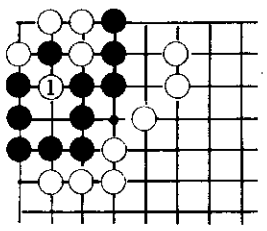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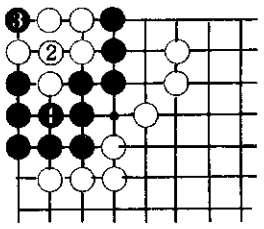
〈등제도〉…과거 李鉉9단과 鄭昌鉉7단 사이의 실전에서 나타난 형태. 당시의 실전은 이보다 훨씬 복잡했음. 편의상 간소화시켰다.

〈2도〉



李9단이 白1로 살고자하자 鄭7단은 당연히 (?) 2로 빠졌다. 黑4로 먼저 몰면 白2로 젖혀 패맛이 기 때문이다. 다시 李9단이 3에 두자 鄭7단은 의심없이 4로 破戶했다. 그리하여 白은 5로 봉쇄했고 이 상태로 쌍방 바둑을 끝까지 두어갔다. 李9단은 이곳 黑大馬가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鄭7단은 귀의 白 죽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드디어판을 끝내고 막계가하려할 때 구경하던 金寅9단이 말했다. 『鄭公이 혹시 착각한것 아닌가』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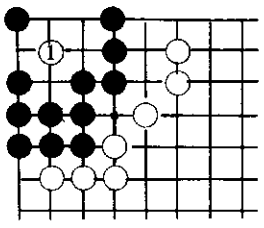
잠시후 鄭7단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다.

〈1도〉…문제도를 압축시키면 〈1도〉가 된다. 白은 한집이 있고 黑은 집이 없으므로 黑의 바깥수가 조여지면 결국 黑1로 때려야한다.

〈2도〉…白이 1로 되때리면서 黑의 궁도가 줄어든다.

〈3도〉…귀의 白을 잡기위해 黑1로 몰면 白은 2로 잇는다. 黑3으로 때려도 이미 梅花六宮에 걸려들었다.

〈4도〉…黑이 때려내도 白이 1로 치중하면 黑大馬는 전멸한다. 鄭昌鉉7단같은 고수도 〈문제도〉가 지닌 시각적인 함정에 현혹되어 大馬를 죽였다. 〈문제도〉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 黑2는 4쪽이 정수였고 白이 2로 젖히면 A로 탈출하여 최소한 大馬는 안전했었다.



〈4도〉

同門作家 短篇選

아버지와 아들

——朴 海 俊 〈60년 師大卒 · 小說家〉

안타깝게 멀어져 갔던 태수의 정신이 점차 선명해지자 꿈을 꾼듯 한 데모의 광경이며 아스팔트거리의 무미건조한 점경들이 나의 눈 되살아나서 마치조각 맞추기를 하듯이 하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갔다. 그리고 그가 어찌하여 경찰병원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른 입원환자들과 그들 문병객들의 대화에서 꿈결인양 여기가 경찰병원이란 것을 알아들을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여기에 입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실정 또한 내키지 않았으나 궁금증도 풀겸무료하고 따분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건성으로 물어보았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니까?』

『어디긴? 경찰병원이란다. 이제 정신이 드냐?』

비탄에 젖어 붕대에 칭칭 감긴 태수의 얼굴을내려다보고 있던 어머니가흐르는 눈물을 연신 훔쳐내면서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도 옆방에 입원해 계시단다. 너와 똑같이 머리가 터져서……애비 안들이 원!』

어머니는 어이없어 하면서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의 넋두리인즉 아버지가 머리를 다쳐서경찰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을나서는데 이번에는 또 종로 5가의 반도병원에서 태수가 머리를 다쳐서 입원해 있다는 동료학생의 연락을 받고 안절부절하다가 태수쪽으로 먼저 가서 그를경찰병원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개인병원은 입원비가 싸기 때문에 경찰인 아버지의 의료비 덕을 보기위해 경찰병원으로 옮기기를 잘했다는 어머니의 넋두리 섞인 장황한 사설을 듣고 태수는 고소를 금할수 없었다. 경찰봉에 머리가 터져 기절하도록 얻어맞고 선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받아야 하는 자신의 아이러니를 태수는 어떻게 삭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도저도 못하고……』

어머니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다가 결심한듯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장년퇴직 연금을 받으면 구멍가게라도 하나내야지』

아버지의 경찰공무원 정년퇴직이요 연금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태수의 가슴속에는 서글픔이잔잔하게 물결쳐 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한가닥 연민의 정이 우러나왔다.

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태수는 옆방에 입원해계시다는 아버지에게 문병차 가보고 싶었지마는 이내단념해 버렸다. 부상의 정도가 염려스럽지 않은 바는 아니었으나 가서 무슨말을 한단 말인가? 데모대를저지하다가 투석으로 머리에 부상을 당했으니 데모대를 나무라면서 아버지를 위로할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저는 데모대의 일원으로 군사파쇼 타도를 외치다가 경찰봉에 맞아 머리가 깨졌노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머리에 부상을 당했으니 값싼 유행가사처럼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우는 꼴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태수는 이 모든 비극적 상황의 원인이 총칼로 정권을 탈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에 급급한일부 정치군인에 있다고 믿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경찰이그들의 맹종적인 충실한 앞잡이일 뿐이라고 굳게믿고 있는데 그러한 신념을 아버지를 마주 대하여 어떠한 말도할 수가 없었다. 태수는 그 자신이 적극적이고 과격하게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그가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 순리대로 흐르고 있는 역사적 강물에 순응하지못하고 역류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러한 역류는 조만간에 와해되고 말것이라는 신념을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탄과 슬픔이 잦아드는 어머니의 얼굴을물끄러미 올려다 보다가 눈을 감아버렸다. 어머니를위로해 드릴 말을 찾지 못했으려니와 그의 휑뎅그레한 시야에 볼멘 표정을짓고 있는 형의 모습이 비이어 떠벌이더니 고작 이꼴이야?』

태수는 아예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마음의 태세를 갖추었던 터라 눈을 감은채잠자코 있었다. 대꾸해 보았자 그의 화만 더 돋우게 되리라는 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설치고 날뛰어 보았자 하나 좋아진 대로 세상이 되레 세상을더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들뿐이잖아!』

못사람들의 시선은 제자리로 돌아간듯 했지만 잦아들었던 어머니의 비탄과 슬픔은 다시 가는다란 흐느낌이 되어 잔잔하게 귀로 스며들었다.

『고생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공부에만 전념할 일이지……』

형의 옥타브가 올라갔다간 내려가고 내려갔다간다시 올라가기를 여러차례거듭했지만 태수는 죽은듯이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를 저지경으로 만든 건 딴놈들이 아니고바로 네놈 짓이야! 그렇지 않다고 말할수 있겠어!』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거듭 만류하자 그제서야 겨우 그의 옥타브가 내려가서 올라가지를 않았다.

『이상도 좋고 희망적인사회도 좋다! 그런 기백과 의욕을 탓하는게 아니야! 그만한 기백과 의욕을 공부에다 쏟아봐! 그리고 뜻을 이룬 다음에 사회에나가서 네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순서 아니냐?』

태수는 여전히 눈을 감은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형이 뭐라고 닥달을 하든 간에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처신이라는게 이제는 버릇처럼 되어 있었다. 실컷 나무라고 질책하고 닥달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풀에 지쳐서 수그러든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시바삐 이 경찰병원을 빠져 나가야겠다고 집했다. 군사파쇼타도를 외치다가 정작 당사자들에게 치는 근접하지도 못하고 그 앞잡이들의 곤봉에 맞아터진 머리를 그들의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것도 자존심이 상할 뿐더러 출세주의에 빠져 있는 형의위선과 닥달을 견딜만한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과 함께 그 정년퇴직 연금으로 구멍가게를차리겠다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에 더이상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이 경찰병원을 빠져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형의 질책과 난과 닥달도 제풀에 지쳐 그치고 어머니의 가느다란 흐느낌도 멎은지 오래되자 문병객들도 하나 둘 자리를 떴다. 북적거리던 병실과 병원안은 어느새 조용해지고 머큐러크롬과 알콜이 남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태수는 쑤시고 아픈 머리를 바로 세우고 몸을일으켜 앉아 보았다. 그리고 침대를 내려와서 걸어보았다. 견딜만 했다. 이 정도면 불편한 대로 나다닐수 있을것 같았다.

이윽고 실눈같은 초승달이 중천에 떠오르자 태수는 화장실에 가는척하고 병실문을 나섰다. 두어명의간호원이 눈을 감고 달직을 하고 있는 간호원실을 지나서 병원정문을 빠져나오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그와 동시에 뿌듯한 자유감(自由感)이 머리의 통증을 식혀주었다.

〈끝〉

母校소식

敎援人事

▲공과대학 장승필교수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장겸 토목공학전공주임 ▲사범대학 권병두부교수 대학원 과학교육과 지구과학전공 주임 ▲농과대학 이계호교수 대학원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전공주임 ▲농과대학 양병이부교수 대학원협동과정 조경학전공주임 ▲자연과학대학 우치수부교수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장 직무대리 ▲자연과학대학 김우철부교수 대학원 계산통계학과 통계학 전공주임 직무대리 이상 12월1일자) ▲사회과학대학 차재호교수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장 (12월11일자) ▲인문대학 김남두부교수 대학원현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 ▲의과대학 박찬웅교수 의과대학부설 신경과학연구소장 (이상 12월12일자)

自動化시스템 研究所 기공

國內 최초로 産·學·官 공동설립

고급技術人力배양 産業体 제공목적

모교부설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공장 : 광대제어계측공학과 고명삼교수)의 기공식이 지난 12월21일 공대38동 뒤편 이 연구소의 신축공사장에서 열렸다.

이 연구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産·學·官의 공동출자에 의해서 설립되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소로서 기공식에는 趙完圭모교총장과 관련대학 교수가 참석하였고 내빈으로서 韓昇洙상공부장관 17개 출연기업체 사장단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 88년 5월 기업체, 대학 및 상공부 대표들이 참가하여 모교에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7개 기업체가 25억 부담, 상공부가 25억 부담, 모교는 건축부지 원칙을 부담한다는 원칙을세워 실무적인 절차를거쳐 이날 기공식을 갖게 된것으로 90년10월에 연구동이 준공될 예정이다.

이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자동화시스템 분야의 고급기술인력의 체계적 배양및 산업체 제공 ▲생산자동화 기술분야의 기초및 핵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첨단제어, 계측기기의 산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 ▲자동제어분야의 산학공동연구 ▲산업체 연구원을 위한 신기술 재교육및 보급등으로 출연기업체는 기아기공·금성산전·금성하니웰·대우자동차·대우자동차부품·대우중공업·대우통신·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전관·삼성전자·삼성항공·통일·현대전자·동차·현대중장기·천기공·효성중공업등 17개 업체이다.

◇李基俊학장

◇權純亨학장

◇閔弘植소장

2개大學長 새로 임명

工大 李基俊·美大 權純亨 교수

半導体研소장에는 閔弘植교수

모교는 지난 1월1일자로 임기만료된 金商周공대학장의 후임으로 李基俊교수(화학공학), 趙英濟미대학장의 후임에는 權純亨교수(공예)를 각각 임명 발령했다.

이에앞서 12월26일에는 반도체공동연구소장에 閔弘植교수를 임명했다.

◇李基俊공대학장△38년 忠南生△61년 모교工大卒△64년 同대학원졸△66년 美國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수료△71년 美國 위싱턴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63년 금속연료종합연구소 화학공정개발연구원△71년~현재 모교工大교수△85년 모교 중앙교육연구전산원장

◇權純亨미대학장△29년 江原生△55년 모교美大卒△61년~현재 모교美大교수△69년 국전 초대작가·심사위원·운영위원△66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장△86년 한국현대도예가협회장△60~89년제14회 도예개인전

◇閔弘植반도체공동연구소장 △43년 慶南生△66년 모교 工大卒△67~71년 美國 미네소타대학(공학석사·공학박사)△73년 고대 조교수·부교수△76년~현재 모교 工大교수

金鍾吉삼보컴퓨터社長

1억상당의 機器 기증

삼보컴퓨터 김종길대표이사는 지난 12월27일모교 컴퓨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1억원 상당의 컴퓨터및 주변기기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기종은 TG-88+ ID5 7대, TG-POP ID5 8대, TG-POP IA5 45대, DM-12AA 60대, LQ-1550HKA 9대로 이를 장비는 올해부터 계산통계학과에서제공되는 교양교과목인「전산학및 연습」,「컴퓨터개념및 실습」,「통계학및 연습」에서의 실습보조장비와 교재개발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工大발전공로상제정

1회南基棟동문수상

모교 工科大學에서는공과대학 발전공로상을 마련, 지난 12월29일 남기동 前工大同窓會長과 허진규 일진그룹회장에게이 상을 수여했다.

이 상을 수상함으로써 1989년의 工大人으로 선정된 남기동 전동창회장은 동창회의 활성화와 발전기금모금에 기여한공로를, 허진규회장은 올해 모교부설 신소재공동연구소에 1천5백평 규모의 연구동을 기증하는등 산학공동연구에 앞장선 공로를 각각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된것이다.

國會 文公委員

總長초청 母校訪問

국회 문공위원 4명이 趙完圭총장의 초청으로지난 12월28일 모교를 방문했다.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정대철문공위원장, 이윤자·황철수·최각규의원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는 조완규총장을 비롯하여 본부와관련대학의 학·처장이 참석하여 「서울대학교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영일기획실장의 보고를 듣고 모교발전에 관한제반문제에 대해 의견을나누었다.

獨學으로 法大에 합격한

田根昊군에 잇단 誠金답지

中學校 2학년까지 다니다가 가정형편때문에 자퇴하고 독학으로 올해 모교 法大에 합격한 田根昊군(18세·사진)에게 각계에서 온정이 답지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1월12일 오후 서울 그랜드백화점 문화홀에서 열린 在京 宜寧郡鄕友會 신년교례회에서 南學祐회장은 이고장출신인 田군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으며 그랜드백화점 金晩迫사장도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시에서 태어난 田군은 국민학교 4학년때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자 馬山으로 이사 창신중 2년까지 다녔지만 가정형편탓에 결국 자퇴해야 했다.

이듬해 가을 田군의 가족은 오래전에 떠난 고향 의령을 다시 찾았다. 田군은 아버지를 도와 낮에는 남의 과수원밭을 일구기위해 괭이를 잡아야 했고 공부는 주로 새벽과 저녁을 이용했다.

국민학교 입학이래줄곧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田군은 자퇴 3개월만에 高入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1년뒤인 87년7월에는 학원문턱 한번 밟지않고도 평균 94점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大入검정고시마저 거뜬히 정복했다.

그러나 田군은 한차례 패배를 맛봐야 했다. 88년 역시 법대에 지원했다가 실패한 것이다. 田군은 이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재도전, 합격의 영광을안았다.

田군은 온정이 답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여러 고향어른들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재학생登錄 2월 13일부터

新入生은 7일~8일까지

90학년도 1학기 재학등록이 2월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며 등록금 납부처는 종전대로전국 각지역 농협과 조흥은행 본·지점및 출장소이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등록금납입고지서가 집으로 우송되므로 학생들은 각자 소속학과에서 수신후 소홀함 없이 확인해야 하며 장학금수혜자, 복학생의 경우 등록금납입액이 「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고지서를 지정장소에 제출하고 영수증을 수령해야 등록으로간주된다.

한편 복학·복귀·복적·재입학원의 제출은 2월1일부터 2일까지 소속대학 교무행정실에 제출하고 2월15일 납입고지서를 교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군복부를 마치고 복학 또는 복귀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초본(입대·제대일자가 명시된것) 1부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3월29일(수업개시) 1/4선)이전의 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장의 전역예정증명서 1부를 첨부하고 전역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2월13일부터 16일 사이에 소속대학(원) 교무행정실에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입생등록은 2월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관악·연건·수원캠퍼스에서 받는다.